책 읽는 사회 만들기

9월 독서의 달

그래요,

책이 좋아요!

COLORCODE®
칼라코드팝으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NO.225
Korea.kr/gonggam
2013.09.16/23

Weekly 공감

G20 정상회의 · 베트남 국빈방문 성과

마음으로 다가선 '비즈니스 외교' 펼쳤다

기획특집

글로벌시대 문화적 다양성은 우리의 자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린다

같이가요

www.mogef.go.kr

같이하면 더 웃을 수 있습니다
같이하면 더 힘낼 수 있습니다

같이 만큼 큰 에너지는 없습니다

다문화, 같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희망 에너지도 더 커집니다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복권위원회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이지현
경기도 안성시

처음 한국에 입국하던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캄보디아에서 결혼중매회사를 통해 남편과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 2008년 2월. 남편이 먼저 한국에 돌아가고 나서 나중에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가장 먼저 놀란 게 어마어마한 공항 크기였는데요, 그 넓은 곳에서 신랑이 나를 못 찾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결혼중매회사 직원이 종이에 약도를 그려주었는데, 막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말은 안 통하지, 눈앞이 캄캄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신랑 얼굴이 짠~! 얼마나 반가운지,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국말을 외쳤습니다. '오빠!' 그 소리에 다들 쳐다보았지요. 정작 남편은 자신을 부르는 걸 모른 채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빠 소리밖에 몰랐지만 이제는 '자기야'도 하고, '여보' '당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시작해 이제 6년째인 한국생활, 지금은 경기 안성시에서 돈가스 식당을 합니다. 남편은 배달, 저는 주문을 받습니다. 제 한국말이 다른 다문화가정 여성들보다 빨리 늘 수 있었던 이유가 전화로 돈가스 주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행복한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 여섯 살, 세 살짜리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장사 준비에 들어가 오후 8시 30분에 마지막 주문을 받고 가게를 정리하는 생활을 한 지도 벌써 4년째입니다. 착한 남편, 좋은 시부모님 덕분에 막내아들이 태어나기 몇 달 전부터 친정 부모님도 서울로 모셔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6년째인 한국생활, 지금은 경기도 안성에서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주변에서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어 틈틈이 공부하며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외모가 조금 다르고, 다른 나라에서 온 것 말고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물론 여러 단체, 좋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은 생각에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평소보다 한 시간쯤 먼저 일어나고, 저녁에 조금씩 공부를 해 지난 8월 초등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중등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컴퓨터를 통해서 한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남편과 함께하는 장사가 잘돼서, 언젠가 사회복지사가 되는 꿈을 꾸는 저는 외모가 조금 다르고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것 말고는 여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한국 사람입니다.

다행히 제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다정하고 따뜻한 분들이랍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기특하고 예쁘다 하며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요…. 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기획특집

글로벌시대 다문화는 우리의 자산

29

G20 정상회의 및 베트남 국빈방문

표지이야기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0일 오후(현지시간) 호치민에 위치한 한국 패션기업 한세베트남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일하고 있던 한세베트남 근로자 람티 민트(34)와 만나 환담을 나누는 등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격려했다. 한 · 베트남 비즈니스 외교가 새 장을 열고 있다.
사진 · 연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위클리 공감〉 이번 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 09.16/2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독자마당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30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답글

223호 〈이번 추석엔 전통시장도 전화주문 돼요!〉를 읽고

최남이(자영업 ·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이제 전통시장도 장보기나 배송서비스가 좋아져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정겨움과 인정미가 넘치고 가격 흥정도 하며 '맛보기'하는 즐거움이 있어 이래저래 장점이 많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서민들의 가계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만큼 이번 추석 제수용품은 가급적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전통시장에서 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답글** 대형마트의 확산 등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마케팅, 교육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상인들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성식 사무관(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223호 〈월세소득공제한도 5백만원으로 확대〉 기사를 읽고

유재범(회사원 · 서울 관악구 봉천6동)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경우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보완 계획이 있다면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 **답글** 월세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집을 3채 이상 5년 넘게 임대할 경우 소득세의 20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 김건영 팀장(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223호 〈경력단절 여성, 귀환하라!〉를 읽고

조향원(주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같은 상황의 여성으로서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는 그녀의 모습이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은 기관들이 좀 더 많아져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모든 여성들이 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답글** 2017년까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현재 118개에서 총 2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지역 개념으로 센터를 세웠다면 앞으로는 간호, 봉제, 체육, 전문자격 등 특화된 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 전대규 주무관(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신뢰가 만든 '응급의료' 정책효과를 보았습니다

환자 적체 현상을 보다 못한 대구시와 지역 중점병원들이 나섰다. 환자들을 연계된 2차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2차 병원을 선정했다. 인상 깊은 것은 모든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었다. 응급의료 네트워크의 취지에 대해서도 긴 설명이 뒤따랐다. 환자들은 병원을 옮겨가는 불편을 감수했음에도 응급의료 네트워크 이용에 큰 만족도를 나타냈다. 공공과 민간, 시민들 사이에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높은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글 · 박미소 기자

'댓글에 답글' 코너 신설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www.korea.kr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gonggam.korea.kr
위클리 공감 블로그	koreablog.korea.kr
위클리 공감 트위터	@weeklygonggam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알림

'쌀사랑 · 농촌사랑' 쌀문화 공모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국민에게 쌀사랑과 농촌사랑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제2회 쌀문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밥 중심의 식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 주제 ▶ 쌀사랑 사진이야기 공모전 : 쌀(농업)을 주제로 한 사진과 사진에 담긴 이야기
▶ 쌀사랑 어린이 글 · 그림 잔치 : 쌀 관련 자유 주제(예시 : 밥, 쌀과 관련된 이야기, 농촌 풍경의 아름다움, 내가 생각하는 쌀의 의미 등)

공모 자격 〈쌀사랑 사진이야기 공모전〉 누구나 / 〈쌀사랑 어린이 글 · 그림 잔치〉 초등학생 1~6학년

공모 일정 9월 30일까지(결과 발표 10월 22일)

응모 방법 ▶ 쌀사랑 사진이야기 공모전 : 농업박물관 홈페이지(www.agrimuseum.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쌀사랑 어린이 글 · 그림 잔치 : 우편 접수(100-707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번지 농협 농업박물관 공모전 담당자 앞)
※ 자세한 응모 양식은 홈페이지 참조

시상 내역 ▶ 글 · 그림부문 대상 : 장관상(농산물상품권 50만원)
▶ 사진부문 대상 : 농산물상품권 50만원
각 부문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그 외 시상 내역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농업박물관 쌀박물관팀 ☎ 02-2080-5681~5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동영상 · 포스터 공모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동영상 및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피해 예방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모 자격 전국 대학생 및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개인 및 4인 이하 팀 단위 참여)

공모 주제 불법 사금융,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동영상 및 포스터

공모 일정 9월 30일까지(수상자 발표 : 10월 17일)

시상 내역 동영상 부문(금융감독원장상, 1팀 200만원)
포스터 부문(금융감독원장상, 1팀 100만원)
(세부 시상 내역은 홈페이지 fssblog.com/140195800955 참조)

접수 방법 동영상 또는 포스터 파일을 이메일(kongmo@fss.or.kr)로 발송

문의 이메일(kongmo2013@naver.com) / ☎ 02-518-9981

낱말맞히기

1				2	
		3		4	5
6			7		
			8		
		9			
10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기 225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9월 30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풀이

1 날이 새고 얼마 동안. "OO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다."
4 묘한 기술이나 수. 뛰어난 솜씨나 교묘한 재주를 지닌 사람.
6 남북 분단 등으로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르는 가족. '남북 OOOO 상봉.'
8 몸과 날개가 길고 몸은 흰색, 부리는 녹색인 겨울 철새. 학이라고도 하죠. 천연기념물 제202호.
9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OO 대비하다."
10 하노이가 수도인 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쯔엉 떤 상 국가주석에게 OOO 정부가 추진 중인 1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세로 풀이

1 방이나 솥에 불을 때기 위해 만든 구멍. "OOO에 불을 지피다."
2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돌보는 일. 주로 설, 추석, 한식에 하죠.
3 한 문중에서 맏이로만 이어온 큰집. "어머니는 평생 OO살림을 꾸려 나가셨다."
5 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
7 여자가 예복을 입을 때 머리에 얹던 관의 하나. 비단으로 만들고 구슬로 꾸미죠.
9 얼굴이 잘생긴 남자.

〈위클리 공감〉 223호(9월 2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 **2** 호환 **3** 주부 **5** 도전 **6** 전산 **7** 관광객 **9** 장보기
세로 **1** 귀환 **2** 호전 **4** 부동산 **5** 도서관 **6** 전성기 **8** 객장

〈위클리공감〉 223호 '공감 낱말맞히기' 당첨자
김대환(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은주**(전남 구례군 문척면)
서정세(경남 양산시 서창로) **이기백**(서울 강서구 까치산로2길)
정윤경(강원 원주시 신림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우 : 110-360)

박근혜 대통령(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9월 6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티노프스키궁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2세션을 마친 후 각국 정상들과 공식 촬영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세션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러시아의 요청으로 선도 발언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2세션 참석 중 옆자리에 앉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계경제 추진동력 회복할 계기 마련"

박근혜 대통령, 이탈리아·독일·카자흐스탄·러시아와 잇따라 정상회담도 가져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국빈방문 등 7박8일간의 해외 방문을 마치고 9월 11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참석한 첫 다자회의인 G20 정상회의에서는 '가교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과는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취임 이후 첫 다자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5일과 6일(이하 현지시간) 이틀간 G20 정상회의장 안팎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을 중재하는 가교 리더십을 발휘, 미국의 출구 전략과 관련해 신흥국 금융 불안이 세계경제 회복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 공조를 도출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G20 정상회의에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들의 강력한 리더십을 당부,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의 규칙을 마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자로서 추진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첫날 열린 1세션에서 특히 향후 출구 전략의 부작용에 대응한 추가 공조(통화당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 효과를 관리하자"는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금융안전망(RFA) 역할 강화에 유보적이던 선진국을 적극 설득해 국제통화기금(IMF)과 RFA 간, 또는 RFA 간 정보·경험 공유 등 대화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로 하여금 진전사항을 이행·점검(follow-up)할 것을 제안,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는 G20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둘째날 열린 2세션에서 의장국인 러시아의 요청으로 선도 발언을 한 박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이슈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차기 의장국인 호주 등은 우리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G20 내 일자리 논의가 본격화되고 실질적 성과도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의 선도 발언 가운데 '창조경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IMF 등 국제기구에 관련 연구 권고' 등은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고, 또한 정상선언문에도 '시장원칙', '효과적인 규제', '포용성 및 강한 글로벌 제도에 기반한 개방적 세계경제' 등의 문구로 반영됐다.

G20 정상회의는 ▶거시정책 공조 ▶일자리 창출 ▶장기투자 재원 조성 ▶다자무역체제 강화 ▶역외조세 회피 방지 ▶국제금융체제 ▶금융규제 ▶금융포용, 개발 ▶에너지·기후변화 ▶반부패 등의 이슈별 성과를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6일 오후 폐막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탈리아, 독일, 카자흐스탄, 러시아 정상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5일 정상회의 개막 전 가진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섬유·직물산업, 디자인·패션 등 창조경제 및 중소기업 협력, 대북정책 공조, 2014년 밀라노에서 개최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및 2015년 밀라노 박람회 등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6일 오전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메르켈 총리의 초청으로 독일측 숙소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올해 수교 130주년이자 광부 파독 5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긴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 ▶주요 국제 현안 등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당선 직후 메르켈 총리가 외국정부 수반 중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해준 데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후 적절한 시기에 독일을 방문하기를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2000년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 방독을 계기로 당시 기민당 최초 여성당수였던 메르켈 총리를 처음 만난 이래 각별한 인연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어 6일 오전에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개최된 한·카자흐 자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들어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소, 잠빌 해상광구 석유 탐사 등이 잘 추진돼 양국 간 경협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했으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 발전 확대를 기대했다.

G20 정상회의 폐막 직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의 러시아 극동 진출 활성화 방안과 북극 항로 및 항만 개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하고, 최근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사태 등 주요 국제현안과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G 글·박경아 기자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박근혜 대통령과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이 9월 9일 하노이 주석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한·베트남 포괄적 FTA 내년 체결 합의

박 대통령, 하노이 정상회담에 이어 경제도시 호치민서 '비즈니스 외교' 펼쳐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은 비즈니스 외교 여정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보다 내실 있는 관계로 양국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1,700킬로미터 떨어진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까지 이동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했다. 방문기간 박 대통령은 쯔엉 떤 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응웬 푸 쫑 당서기장, 응웬 떤 중 총리, 응웬 신 훙 국회의장과도 면담했다.

전날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참관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박 대통령은 9월 9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상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 정세, 경제협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베트남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룬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2009년 수립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먼저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정상회담의 정례화 개최에 노력하고, 양국의 정부·정당·의회 등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정치·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에 대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을 촉구했다.

경제·통상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간 무역액을 2020년까지 700억 달러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무역을 확대하며, 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하여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베트남에 대한 민간 투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2012년 만료된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재개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베트남에서의 원전 개발,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융깟 석유비축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 딴번~연짝 도로 건설사업 등 교통 인프라 개발 분야 등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 식품 생산·유통, 식품 위생·안전 등 농업 관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으로 추진될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취약지역 종합개발사업인 '베트남 행복 프로그램'에도 협력해 베트남이 2020년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 동행… 한국기업 애로 직접 전달

이번 베트남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79명)과 동행함으로써 '경제'에 방점을 두었던 박 대통령의 행보는 9일 응웬 떤 중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전날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들은 애로사항을 적어 두었던 박 대통령은 중 총리에게 해결을 직접 건의했으며, 이를 통해 6년간 숙원이었던 하나은행 호치민 지점 개설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0일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을 방문해 레 탄 하이 호치민 당서기, 레 황 퀸 호치민 시장과 면담 및 업무오찬을 갖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한·베트남 간 경제교류를 상징하는 대표 도시 호치민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호치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양국 경제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마이스터 학교 졸업생도 현지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됐다.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이 추가 투자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한편 박 대통령은 호치민에 위치한 현지진출 기업 한세베트남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생산라인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했다. 이어 호치민 주재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베트남 진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에 FTA를 체결하기로 하고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오게 됐다"며 "앞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10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9~10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 세일즈 외교를 이어갈 예정이다. G

글·박경아 기자

한·베트남 정상회담 결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

정치·안보 분야 협력 강화
- 정상회담 정례화에 노력, 정부·정당·의회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 외교·안보 전략대화 정례 개최, 국방 교류협력 심화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
-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간 무역액을 2020년까지 700억 달러 규모로 확대
- 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 합의
- 2012년 만료된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재개 노력 합의
- 베트남 원전개발 협력
- 융깟 석유비축사업, 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지원
- 농수산식품 생산 및 유통, 위생 및 안전, 농업 분야 MOU 체결 추진

개발협력 확대
-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협력
- 취약지역 종합개발사업 '베트남 행복 프로그램' 협력
- 대 베트남 민관협력 사업인 딴번~연짝 도로 건설사업 투자 활성화

사회·문화분야 교류 확대
- 언어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분야 교류
- 공공외교 분야, 특히 청소년 간 교류 확대
-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동의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
- ASEAN+3, APEC, ASEM, UN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

마음으로 다가선 '비즈니스 외교'

박근혜 대통령 해외방문 일지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9월 5~6일)

- **주제** 세계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
  세션1 성장과 세계경제
  세션2 일자리 창출과 투자
  박근혜 대통령 선도발언
- **양자 정상회담**:이탈리아·독일·카자흐스탄·러시아

베트남 국빈방문(9월 7~11일)

- 하노이·호치민
-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

1 박근혜 대통령이 9월 8일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원전로드쇼 전시장을 방문해, 핵증기공급설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이 9월 7일 러시아 국민의 자부심이자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쥐 미술관을 방문해 예술 전시실을 관람하고 있다.
3 박 대통령이 9월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미하일로프스키궁에서 열린 동포만찬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듣고 있다.
4 한복 차림의 박 대통령이 9월 8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복-아오자이 패션쇼장에서 런웨이를 걷고 있다.
5 박 대통령이 9월 10일 저녁 베트남 호치민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동포와의 만찬간담회에서 동포 어린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한국형 원전 베트남 진출 지지 확보

FTA체결 합의로 시장선점한 일본과 대등한 경쟁 발판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신뢰외교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향후 20년간 우호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방문은 동남아 지역의 핵심 신흥경제국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심화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의 시작을 알린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은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현재의 200억 달러 수준에서 7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여섯번째 수출국이자 우리나라에는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무역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해 당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역을 통한 경제 협력의 확대가 양국 경제에 선순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에 베트남이 동의함으로써, 향후 6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교역 규모를 3배 이상 대폭 늘리자고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교역 규모의 확대 합의는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않고, 양국 간 FTA 체결 합의라는 구체적 결실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내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보다 먼저 베트남과의 FTA 체결을 통해 시장을 선점했던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룬 것이다.

그동안 일본이 2009년 베트남과 체결한 양자 FTA를 기반으로 베트남 시장을 선점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무선통신 기기, 철강판 등이 베트남 시장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한·베트남 FTA 체결 합의는 경제적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의 베트남 세일즈 외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베트남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 10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러시아와 일본을 1·2차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베트남 중부지역에 건설할 예정인 3차 원전은 140만 킬로와트급의 5·6호기로 사업비는 100억 달러 규모이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원전의 수출을 목표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2015년 초 결정될 최종 수주 여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였다.

박 대통령은 쯔엉 떤 상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 원전 개발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원전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형 원전 사업에 대한 베트남 측의 확실한 지지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현지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마음을 얻는 '신뢰외교'에 힘입은 바 크다. 박 대통령은 한복─아오자이 패션쇼에 직접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깜짝' 등장으로 베트남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또한 베트남 국민들에게 국부로 추앙받는 호치민 전 주석의 거소를 직접 방문하고 그의 묘소를 참배, 헌화함으로써 양국 간 쌓여 있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몸소 보여주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베트남 간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여 양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두 정상 간 공동성명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번 박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구축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이다. 우선은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분야별 협력 과제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동남아의 신흥 경제 강국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의 발전 단계에 맞춰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로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호를 쌓을 수 있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

글·최원기(국립외교원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여행지 편의시설
정보가 가득!
장애인 여행을 위한
즐겨찾기!
함께하는 여행
access.visitkorea.or.kr
access.visitkorea.or.kr
[함께하는 여행]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장애인 전문 여행정보 사이트입니다.
전국 주요 여행지, 숙박업소, 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실제 사진, 규격 등)와 사용 후기까지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으로도 만나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심·지지 이어져

G20 정상회의·베트남 국빈방문서 정상들 입장 표명

폐쇄 위기까지 몰렸던 개성공단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이번 박 대통령의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국빈방문은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이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와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합

G20 정상회의 폐막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9월 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한·러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동남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과 정상회담을 가진 베트남의 쯔엉 떤 상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과 상 주석은 9월 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측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양측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을 촉구했다”면서 “베트남 측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고,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표명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했던 나라가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지지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방문에 앞서 지난 9월 5일과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가능한 참여를 요청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4강 국가와 국제 공조를 한층 공고히 했다.

박 대통령은 4강 국가 가운데 지난 5월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다.

이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촉구와 더불어 남북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실현되도록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질적 지지를 얻어낸 바 있다.

박 대통령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되도록 노력”

폐쇄 위협으로부터 시작해 가동중단, 실무회담, 회담결렬, 회담 재개로 이어진 133일간의 여정 속에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이뤄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각국 정상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장 먼저 지난 9월 5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탈리아 엔리코 레타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레타 총리는 이날 한국과 이탈리아 간의 경제와 통상 분야 협력이 더욱더 증진되기를 희망하며 “북한문제는 세계정세에 있어 중대한 문제이기에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근간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개성공단 문제도 그 차원으로 추진했다.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 폐쇄의 위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했고,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기로 합의해 국제적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탈리아 기업이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6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가진 한·독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은 “독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한다”라며 “이는 한국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글·박경아 기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

▶ 추진 배경
- 북한의 도발-위기-타협-보상-도발로 이어지는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견인
-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위기의 근원적 해결 추구
-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 통합적 접근 모색

▶ 3대 추진 원칙

균형 있는 접근
-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협력과 국제공조의 균형
- 유연할 때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 더 단호하게 정책 추진

진화하는 대북정책
-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남북간 공동발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지속보완·발전
- 상황에 맞춰 대북정책 변화, 한반도 상황을 능동적으로 관리

국제사회와의 협력
-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 위기 해결
-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의 선순환 추구

자료·통일부

기초생활보장제 현실에 맞게 개편 수급대상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린다

내년 10월 시행… 주민센터를 지역복지 거점으로 효율적 복지전달체계도 구축

4인 가족의 가장 A씨는 최근 새로운 회사로 옮긴 후 월 120만원이던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A씨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54만원)에서 탈락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더 이상 받을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걱정은 덜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9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 기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고, 급여 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화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되면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를 모두 받았지만, 지원 자격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못 받는 구조였다. 이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특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만 골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정책 시행으로 내년 10월부터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기존 83만 가구(140만명)에서 110만 가구(180만명)로 늘어날 예정이다.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나왔다.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해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전체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오는 소득)으로 변경됐다.

'생계 급여'는 현행 수준에서 중위소득의 30퍼센트(2013년 4인 가족 기준 115만원) 이하, 의료 급여는 40퍼센트(155만원) 이하, 주거 급여는 43퍼센트(165만원) 이하, 교육 급여는 50퍼센트(192만원) 이하 수준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생계 급여는 2013년 기준으로 77만 가구가 받던 것을 82만 가구가 받게 되며, 받는 액수는 가구당 평균 33만원이 유지되거나 최대 5만원까지 더 받는다. 이에 따르면 A씨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다.

주거 급여 역시 현재 73만 가구가 평균 8만원씩 받던 것을 97만 가구가 평균 11만원씩 받게 된다. 의료 급여는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이 거의 없이 진료를 받는 현행 지원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단,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내년 10월부터 완화되면서 약 12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퍼센트 선이 부양 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이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아버지를 둔 아들 가구(4인)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 392만원을 넘으면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됐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적어도 441만원(중위소득 384만원+1인 최저생계비 57만원)을 넘어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선보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구축을 통해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복지 행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합상담과 찾아가는 서비스, 민관 협력 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농촌 지역에는 내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의 권역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우체국이나 농협 등 지역조직을 활용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계획이다.

글·박미숙 기자

2014년 10월 기초 생활보장제도 새로워집니다

다양한 선정기준, 더 안심해요!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수급자 선정기준이 급여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화된 부양능력 판단기준, 가족의 부담을 덜어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가 수급자를 부양해도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소득기준이 현실화됩니다.

강화된 보장수준, 더 든든해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으로 보장성 강화

급여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주민센터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복지정보를 한번에 제공해드립니다

도시형 주민센터 복지행정 기능 강화

서비스 안내 대상 확대

기초생활 / 노인 / 육아 / 장애인 / 한부모 가정 / 임산부

보건 / 복지 / 고용

복지정보 제공 내실화

농촌형 접근성 제고, 지역 조직 활성화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권역센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권역센터 설치**

우체국 / 농협 / 취약계층

지역조직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전달**

희망복지지원단 : 다양한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마을단위 복지거점 확충

경로당, 마을회관

공용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전달 강화**

꼭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조사 >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욕구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맞춤서비스 확대

지역주민과 함께 복지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통장 부녀회장 교사 > 복지리더

민간복지리더 양성

민관협력방안 다양화

서민금융 통합…유기적 지원 펼친다

내년 초 총괄기구 설립…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내년 초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 등의 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설립된다. 또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유사하지만 지원 조건이 달라 수요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금융상품들의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민금융 지원과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에서, 자금 지원은 미소금융재단(미소금융), 신용보증재단(햇살론) 등 상품별 담당기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 탓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통합할 방침이다. 새롭게 설립될 총괄기관은 미소금융, 보증부 저리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채무조정 등 기존의 서민금융기관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며 일자리 지원, 상담 등 서민금융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지분을 100퍼센트 넘겨받되 운영은 현재처럼 캠코에 계속 맡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총괄기구가 설립되면 금융위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자의 생애주기별로 신용상담 및 신용회복, 자금지원 등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자의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해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게 돼 지원자별 이력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상품 지원 조건 통일

또한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이 통일된다. 저신용·저소득층에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이 상품들은 성격이 유사한데도 지원 기준이 달라 수요자에게 혼란을 줬다.

상품별로 취급기관과 신청자격이 약간씩 다르다 보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기 어려웠다. 정부는 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 조건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다.

글·김혜민 기자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 새희망홀씨: 5등급 이하(4천만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 햇살론/바꿔드림론: 6등급 이하(4천만원 이하) 또는 2천600만원 이하

→

-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공통: 6등급 이하(4천만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서민금융총괄기관 설립으로 달라지는 서민금융 지원

자료·금융위원회

내집 마련 '공유형 모기지' 10월 1일부터 인터넷 접수

대출 심사 후 최종 3천명 선정… 전월세보다 최고 6천만원 절약 예상

서울 왕십리 뉴타운 본보기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산 후 금융기관과 매매 차익·손실을 나누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장기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연소득을 합산해 7천만원 이하,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라면 사전상담 뒤 신청할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아파트를 전월세로 거주할 때 보다 최고 6천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 부동산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자기자금 8천만원으로 시세 2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가격이 연 3퍼센트씩 오른다는 가정에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 일정을 확정·발표했다.

시범사업은 9월 23~30일 사전상담 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 1일부터 인터넷 접수와 서류 방문 접수를 받는다. 대출 심사는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10월 4일부터 우리은행이 1·2차 대출 심사를 시작하고 10월 8일부터 한국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11일부터 대출 대상자를 통보할 계획이다.

9월 23~30일 꼼꼼히 사전상담 받아야

특히 사전상담 서비스는 공유형 모기지가 기존 일반 대출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시범 사업은 충분한 상담과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1퍼센트대 저렴한 금리가 부각되면서 다소 기대가 과잉된 측면이 있어 성급하게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사전 상담제도가 도입됐다.

사전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 기간 내에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대출 대상, 대출 조건, 수익 배분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 상담 후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10월 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다음날까지 인근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유형 모기지 인터넷 접수를 위해선 반드시 사전 상담기간에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두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물량을 감안해 선착순 5천명의 접수를 받은 후 마감할 계획이다.

대출 심사는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인터넷 접수만 허용하고 접수 순서대로 대출 심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밤샘 줄서기 등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출심사 기준은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상환 능력, 대상 주택의 적격성 등 3가지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성을 감안해 차등화한다. 장애인·다문화·신혼·노인부양 가구는 가점을 부여한다.

우리은행 1차 심사를 통해 5천명에서 4천명으로 압축한 후, 한국 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 및 우리은행 2차 대출심사를 한다. 최종적으로는 3천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기존에 소유·무소유 2가지로 나뉘었던 주택 매입 방법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집값 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G

글·남형도 기자

공유형 모기지 Q&A

'수익공유형' 집값 상승땐 최대 5퍼센트 이자부담

• 공유형 모기지란?

1. 수익 공유형: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나,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퍼센트까지 기금을 통해 1.5퍼센트 저리로 대출하고 주택을 팔 때 매각 이익을 기금과 공유한다.
2. 손익 공유형: 주택기금이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퍼센트까지 지분 성격의 자금을 대출하고, 매각 손익을 공유한다.

• 기본형과 수익공유형의 장·단점은?

수익공유형의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1.5퍼센트의 금리만 부담한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최대 5퍼센트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공간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투자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를 경우는 기본형이, 내릴 경우는 전월세가, 불확실할 경우는 공유형이 유리하다.

•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대상은?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국한한다.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 지원 차원에서 준공된 기존 아파트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지원 대상이다. 신규 분양주택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구입자 입장에서의 비교

구 분	비 교
금리(임대료)	• 금리면에서는 공유형 모기지가 유리 : 기본형(3.3%) 〉 수익형(1.5%) ≒ 손익형(1~2%)
원리금 상환부담	• 원리금상환부담은 손익형이 가장 유리 : 기본형 = 수익형(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손익형(만기 일시상환)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기본형과 수익공유형이 유리 : 기본형 = 수익형(LTV 70%) 〉 손익공유형(LTV 40%)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모두 동일 : 기본형 = 수익형 = 손익형(20년 만기 동일)
집값 하락위험	• 집값하락시, 손익형이 유리 : 기본형 = 수익형(손실 100% 매수인 부담) 〉 손익형(기금과 손실 공유)
시세차익 배분	• 집값 상승시, 기본형이 가장 유리 : 기본형(수익 100% 향유) 〉 수익형 ≒ 손익형(기금과 수익 공유) * 다만, 수익형은 기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금 수익률 상한을 제한하므로 손익형보다 일부 유리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연 2조원 상당 불법 캐릭터 복제물 '철퇴'

주요 캐릭터 전담 단속반 편성해 특별단속… 검찰에 처벌강화도 요청

결합 복제 불법 캐릭터인 마시뽀로(오른쪽)는 마시마로와 뽀로로(왼쪽)를 결합하여 복제했다.

'마시뽀로'는 인기 캐릭터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쳐 만든 불법 복제 캐릭터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 캐릭터는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이 허가돼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2 캐릭터 산업백서' 자료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산 캐릭터 산업은 2011년 매출액 기준 7조2천억원에 이를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그중 30퍼센트에 육박하는 2조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시뽀로' 같은 불법 복제 캐릭터 상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관세청 등과 함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정품 캐릭터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불법 복제 캐릭터 상품은 일반 저작물과 다르게 결합 복제(2개 이상의 캐릭터 제품을 결합해 만든 제품), 변형 복제(정품 캐릭터 제품을 약간 변형해 만든 제품) 등으로 부정 출원 및 등록되는 경우가 다양해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이 같은 형태의 캐릭터 상품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고소 등 사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뽀로로, 둘리, 뿌까, 마시마로 등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들.

또한 불법 캐릭터 상품 대부분은 반제품을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상품 확인과 수입 차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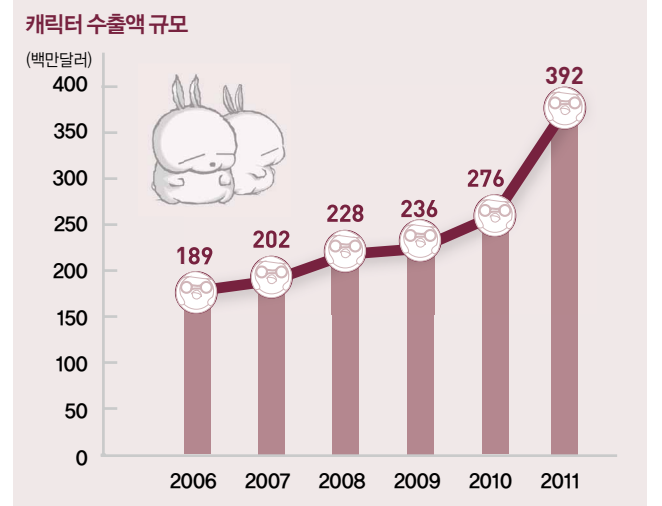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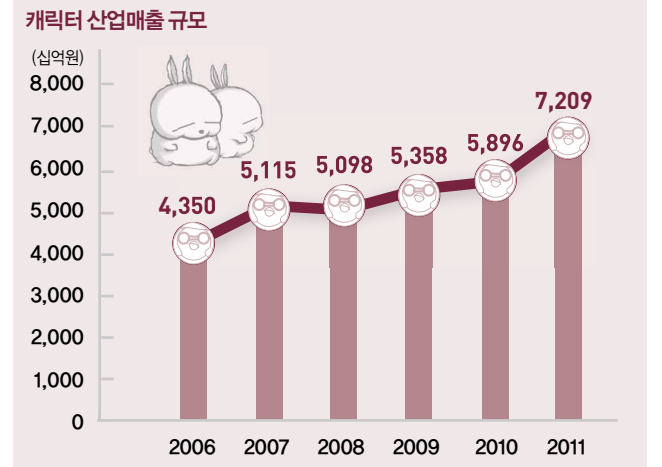
이에 정부는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국산 캐릭터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불법 캐릭터 상품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저작권보호센터 내에 캐릭터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2~3개월 단위로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상시 단속과 함께 정기 단속도 이뤄진다. 상·하반기로 나눠 연간 2차례씩 정기적으로 캐릭터 불법 복제 및 짝퉁 상품을 단속한다. 특히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뿌까팀, 뽀로로팀 등)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했다.

처벌도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불법 복제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의견이 많았다. 저작권 침해로 기소돼도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캐릭터 저작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 복제사범의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불법 복제 캐릭터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례 회의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불법 캐릭터 상품에 대한 인식 바꾸기 위한 대국민 홍보 나서

불법 복제 캐릭터 소비자 대다수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소비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도 힘쓴다. 이에 따라 정품 캐릭터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정품 캐릭터 사용을 장려하는 미디어 공익광고를 만들고 정품사용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산 캐릭터 산업 매출 및 수출액 규모

캐릭터 산업매출 규모

캐릭터 수출액 규모

자료 · '2012 캐릭터 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7월 발족한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즈'를 활용해 범국민 캠페인에 나선다. 국회의원 24명이 포함된 3,500명의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즈는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복제 캐릭터에 대한 신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인 copy112나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위조 상품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글·남형도 기자

불법 복제 캐릭터 신고 copy112 www.copy112.or.kr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신고센터 www.brandpolice.go.kr

"단 한번이라도 고향 땅에 가봤으면…"

1·4후퇴 때 38선 인근서 헤어진 부모님, 남겨두고 온 조카 생사 알고 싶어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 사는 강능환(92) 할아버지는 1951년 1·4후퇴 직후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다. 벌써 62년 전의 일이다. 당시 북에는 여든을 넘긴 연로한 부모님과 두 명의 손위 누이, 그리고 큰누이의 아들이 남아 있었다.

지난 9월 9일 자택 인근에서 만난 강 할아버지는 "남겨놓고 온 가족들의 생사는 불투명하지만, 죽기 전에 단 한번이라도 고향 땅에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강 할아버지는 황해도 신천군 초리면에서 3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친이 고향 일대의 산과 논 등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유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강 할아버지는 서울의 경성전기공업고등학교를 1년 여 다니다 일본 유학을 떠났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다양한 일을 하던 강 할아버지는 1949년 초리면의 바로 옆 동네인 신천군 문무면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는다. 하지만 그 이듬해 바로 6·25전쟁이 터졌다. 강 할아버지의 가족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인민군에게 농지와 집 등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

강 할아버지는 "1·4후퇴 후 인민군이 들이닥치자 북에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며 "시댁이 북에 있는 두 누님을 어쩔 수 없이 남겨놓고, 연로하신 부모님, 큰형과 함께 남쪽을 향해 피난길에 나섰다"고 말했다. 둘째 형은 1·4후퇴 전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미리 남쪽으로 내려간 상태였다.

"아마 38선 인근까지 갔을 거예요. 이틀 밤을 잠도 자지 않고 걸었으니까…. 나랑 형은 젊으니까 인민군 눈에 띄어 끌려갈까 봐 계속 이리저리 도망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부모님을 해변가 어디에 숨어 있도록 하고, 형과 나는 백령도 앞의 작은 섬으로 사흘만 피신해 있다 온다는 게 부모님께 영영 가지 못한 겁니다."

구순이 넘은 나이의 강 할아버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강 할아버지는 남하 직후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하며 큰형과 함께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다. 몇 년 후 두 형제는 서울에 먼저 내려와 자리를 잡은 둘째와 연락이 닿아 서울로 상경, 3형제가 모두 서울에 정착할 수 있었다.

강 할아버지는 미군 부대 등에서 일하며 자리를 잡은 뒤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둘을 둔 채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었다. 지금은 큰아들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같이 남쪽으로 온 큰형은 7년 전에, 작은 형은 3년 전에 작고해 지금은 강 할아버지 혼자만이 망향의 설움을 외로이 달래고 있다. 강 할아버지는 "북녘 땅에 두고 온 가족들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할아버지가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큰누나의 아들이다. 이 조카는 6·25전쟁 때 인민군 포로로 잡혀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었는데, 당시 남북 휴전 후 포로 교환을 통해 부모가 있는 북으로 되돌아갔다.

강 할아버지는 "부모님과 누님 두 분의 생사는 몰라도 그때 북으로 돌아간 조카는 살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이 내 생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조카의 생사가 확인돼 꼭 북녘 땅에 가고 싶다"며 간절한 희망을 내비쳤다. G

글·박미숙 기자/캐리커처·박상철

"해마다 꽃피는 봄이면 고향집 문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님 얼굴 떠오릅니다"

아버님, 어머님!

혹여 지금까지 살아 계실 리 없겠으나, 남쪽에 내려온 60평생 단 한번도 잊지 않고 꿈에 그리던 분들이라 이렇게 다시 목놓아 불러봅니다.

두 분을 북녘 땅에 두고, 형들과 내려온 남쪽 나라, 해마다 꽃피는 봄이 오면 고향집 문 앞에서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기다리시는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은 3남2녀의 막내라고 저를 얼마나 귀여워하셨는지요? 철마다 감자며 고구마며 한솥 쪄 놓으셨다가 손수 껍질을 벗겨 먹여주시고, 더운 여름날엔 제가 자는 머리맡에 앉아 밤새 부채질을 해주시던 어머님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4후퇴 직후 큰형, 저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올 때 두 분은 저희가 힘들까봐 내색 한번 안 하시고, 연로한 몸으로 두 아들을 따라 그 밤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혹여 우리 두 형제가 인민군에 잡힐까봐 전전긍긍하던 두 분이 우리 등을 떠밀며 "우린 아무 걱정 말고 빨리 섬으로 피신하라"는 말씀에 제대로 큰절도 못 드리고 황급히 나온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두 분께 큰절이라도 올리고 나올 것을, 아니면 아예 떠나지 말았을 걸 하는 후회가 앞섭니다.

아버님, 어머님.

세 아들을 남쪽에 떠나 보내고 어찌 사셨습니까? 혹여 고향집에 다시 돌아가시지 못하고 길에서 잘못되지는 않으셨는지, 또는 고향집에 돌아가셔서 남겨진 누이 매부와 의지하고 사셨는지 알 길 없는 소식에 지난 세월 한시도 편하게 잠을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 나올 때마다 눈시울을 적시며 TV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지난 60여 년은 하루 빨리 남북 통일이 돼 부모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찾아오면 차례를 지내며 부모님과 누이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꼭 추석과 설이 아니라도 부모님 생각이 나면 그릇에 물을 떠놓고 북녘 땅을 향해 저 혼자 기도를 올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젊은 날 동네에서 경로 잔치라도 열리면 어찌나 부모님 생각이 나는지, 그 곁을 지나치는 것조차 힘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3형제 모두 남쪽으로 와 일가를 이루고 자손들과 잘 살아왔습니다. 이 모두 부모님이 저희 3형제를 위해 북녘 땅에서나마 기도해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다른 세상으로 가시고, 저 역시 많이 늙었습니다. 살아 생전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다른 두 형님을 대신해 부모님이 계셨던 고향 땅을 밟아 조카를 통해 누이들과 부모님의 생전 소식을 듣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쪼록 저승에서나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강능환 올림.

“서울 유학이 영원한 이별 될 줄이야”

1946년 공부 욕심에 홀로 고향 떠나와… 60년 넘게 가족의 생사 몰라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명도(89) 할아버지는 황해도 은율군에서 태어나 자랐다. 22년 동안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러다 해방 다음해인 1946년, 할아버지는 홀로 남한으로 넘어왔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9월 9일, 김 할아버지를 자택에서 만났다.

“북한에서 원래 국민학교(초등학교) 교원이었어요. 북한에서 교원대학을 다니긴 했는데 그걸로 성이 차지 않았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남한으로 왔죠.”

혈혈단신 남한으로 온 김 할아버지는 먼저 남하한 고향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시작했다. 고향 사람의 집에 모여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할아버지는 동국대학교에 진학했다. 중학생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할아버지는 서울 경신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그토록 원하던 대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교사도 됐지만,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릴 길이 없어 할아버지는 내내 안타까웠다.

그러던 중 전쟁이 터졌고, 할아버지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이후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할아버지는 출판사에서 일하며 자리를 잡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김 할아버지는 북에 있는 가족들과의 잠깐의 헤어짐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몰랐다. 38선이 막혀 다시는 가족들을 보지 못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할아버지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6명이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아버님께서도 교장선생님이셔서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장남이고, 다 큰 청년이니까 서울로 유학을 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영원한 이별이 될 줄 가족들 아무도 몰랐겠죠.”

김 할아버지는 60년 넘게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아직까지 당첨된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유학을 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향이나 가족들의 사진 한 장도 챙겨오지 않았다.

“서울에 올 때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겠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요. 남한으로 온 저 때문에 가족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흘러들어온 이야기로 우리 가족이 고향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커요. 죽기 전에 가족도 만나고, 고향 땅도 밟아봤으면 좋겠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늘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다. 북녘에 두고 온 가족이 더욱 그리워지기 때문이다. 김 할아버지는 “설, 추석, 생일 등 ‘이름 있는 날’이 되면 가족들 생각이 더 많이 난다”고 말했다.

글·김혜민 기자/캐리커처·박상철

“나 때문에 힘들었을 동생들아, 미안하다 지금도 눈감으면 고향 모습이 생생하다”

동생들아!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남쪽으로 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미 다 돌아가셨겠지. 우리 여섯 동생들도 이제 칠십, 팔십이 넘었겠구나. 그때는 다 어린아이들이었는데 참 세월이 이렇게도 빨리 지나갔구나.

내 동생들아. 너희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크다. 아마 남한으로 혼자 온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가족들을 함경도 인근에서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단다. 어머니께서도 매우 힘들게 일을 하시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우리 가족들은 함경도에 전혀 연고가 없는데 왜 그쪽에서 살고 있는지……. 확실하진 않겠지만 아마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 피난을 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부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께서는 불행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남쪽으로 온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지.

그때 우리 가족들이 이별을 해야 하고, 힘든 세월을 겪어야 할 줄 알았다면 혼자 남한으로 오지 않았을 건데……. 그때는 정말 38선을 넘지 못하게 될 줄은 몰랐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부모님 생신, 추석, 설 등 명절이 되면 너희들이 더욱 생각난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함께 지내야 하는데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서로의 생사도 알 수 없구나.

지금도 눈을 감으면 여전히 고향의 모습이 생생하다.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학교의 운동장, 교정, 관사가 다 기억난다. 그곳은 우리 7남매의 놀이터이기도 했지. 지금 고향은 어떻게 변했을지 매우 궁금하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할 때 너희들 이름을 다 적어 냈단다. 너희들 나이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름은 다 알고 있다. 내 나이도 내년이면 아흔이다. 죽기 전에 너희들을 만나게 되면 꼭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동생들아,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 있길 바란다.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구나. 미안하다, 동생들아.

어떤 청년의 꿈은
대기업 취업이라고 한다
어떤 청년은 스스로
기업이 되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CEO의 꿈과 끼를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창업실무교육/1억 원 이내 사업비 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창업준비공간 제공
1:1 창업 코칭/기술장비 지원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www.facebook.com/sbckr

(주)베이스디
이유진 대표이사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더 하이브
이상민 대표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

기획특집

더불어 사는 글로벌시대
다문화가정은 우리 자산

일러스트 · 이철원

엄마는 반상회에서 이웃에 사는 결혼 이주여성과 즐겁게 수다를 떱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같은 반 짝꿍은 다문화가정 자녀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외국인, 타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꿈나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경력을 살려 당당하게 취업문을 열고, 어려운 와중에 이웃을 돕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인 사람도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말투가 어색해도 모두가 우리의 이웃, 동료, 친구입니다.

중앙포토

대구시 동구 반야월성당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마련한 '2013 설날 복 나눔 잔치'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이 종이 접기로 복주머니를 만들고 있다.

한국인 100명당 1.4명 '다문화'

2020년엔 다문화가족 100만명 시대… 정부정책도 사회 인식 개선으로 방향 전환

"한국 사람들은 자꾸 '중국에서 가난을 못 이기고 한국으로 시집왔다'며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봐요.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요." 한 이주 여성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털어놓은 내용이다. 결혼 이민자가 28만명에 육박하는 와중에도 이들은 편견과 왜곡된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 기준 다문화가족은 약 70만명(결혼 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약 27만명, 자녀 약 17만명, 한국인 배우자 포함)에 달한다. 한국인 100명 중 약 1.4명이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라는 통계이다. 2020년경에는 다문화가족이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05년까지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사회 문제들도 발생했다. 한국에 건너온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언어적·문화적 장벽에 부딪쳐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결혼 이주민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가족부는 법을 개정해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중개업소가 난립하며 국제결혼 과정에서 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기준을 강화했다.

한국어 교육과 통역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2009년 100개소에서 2012년 206개소로 배 이상 늘었다. 이곳을 이용하는 결혼 이민자 수도 전년보다 23퍼센트 늘어 2012년 6만5천여 명에 이르렀다.

제도가 개선되고 지원책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다문화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남아 있다. 바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편견 어린 시선이다.

차이는 인정하고 차별은 없애는 인식의 변화 필요

외국계 한국인을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특유의 폐쇄성도 이들을 힘들게 한다. 실제 이주민 지역에 가기를 꺼리거나 대중교통 차량에서 이들 옆에 앉기를 주저하는 등 이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차별은 심하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반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을 이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시혜적 정책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동력이 되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각자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쟁력 제고로도 이어진다.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한 조사를 보면 다문화사회가 진전될수록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클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자녀 세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한 이주 여성은 어엿한 경제 주체로서 사회 전체의 생산력 향상에 보탬이 된다. 다문화가족은 더 이상 소수자나 소외계층이 아닌 우리 곁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웃이다. 차이는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G

글·박미소 기자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 비율

자료 : 통계청

결혼이민자 장래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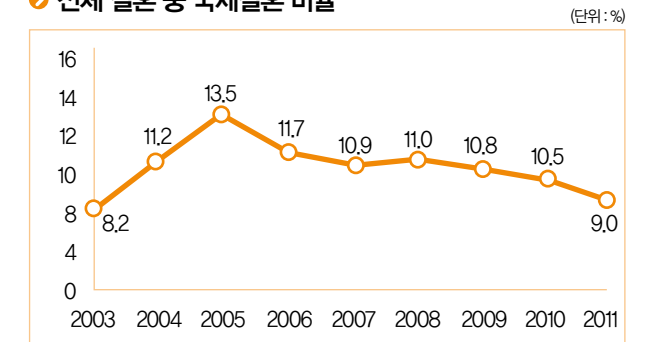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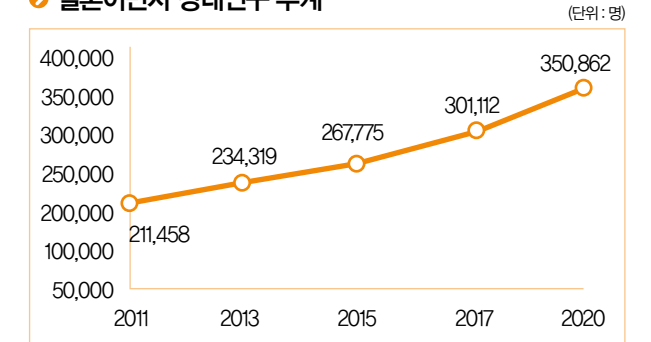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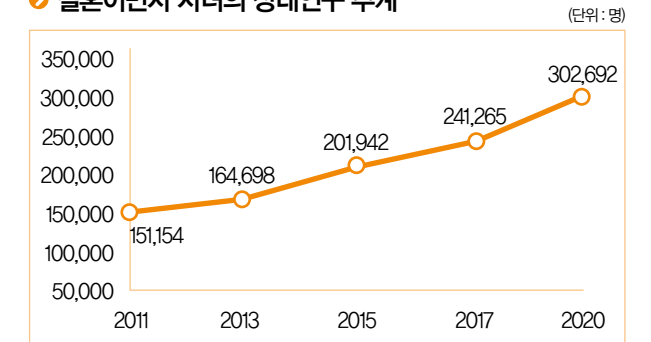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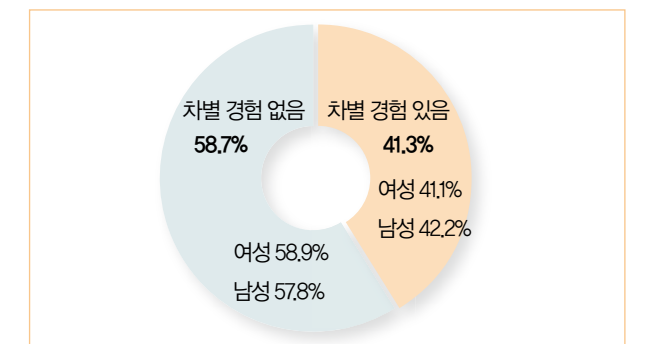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자녀의 장래인구 추계

자료 :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사회적 차별 경험

자료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보호보다 ‘똑같다’는 느낌 받고 싶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면 가르치기보다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려면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황정화, 박클라라, 이연, 베루엔씨.

베트남·중국·키르기스스탄·필리핀, 출신 국가는 모두 다르지만 이들은 짧게는 8년, 길게는 17년 이상 한국에서 산 베테랑 주부다. 한국말은 여전히 어렵고, 생활 역시 실수투성이지만 한 남자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힘차게 살아왔다.

남편 얘기에 말문이 트이고, 장바구니 물가에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에서 주부의 향기가 담뿍 전해진다. 4명의 다문화 주부와 ‘한국살이’에 대한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이들의 말 속엔 따뜻하게 품어준 ‘제2의 고향’에 대한 고마움과 다문화가정을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차가운 인식에 대한 서운함이 공존했다.

박클라라(40·키르기스스탄) “적응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한국어를 배워요. 결혼 초기엔 명절에 시댁에 가서 폐만 끼쳤죠. 고모님께 언니라고 했다가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웃음). 그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요즘은 시부모님과 농담도 하며 지내니까요. 아이를 보고 ‘얘는 누굴 닮아 이렇게 고집이 세?’ 하시길래 ‘누구긴요, 어머니 아들 닮았죠’라고 했더니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황정화(26·베트남) “저는 시집와서 첫 추석이 생각나요. 시댁에 갔는데 무슨 식구들이 그렇게나 많은지, 조카에 형님에 당숙에 이름 외우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말이라곤 ‘오빠(남편)’밖에 모를 땐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다행히 말도 잘 못하는 며느리를 감싸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죠.”

이연(26·중국) “돌아보면 역시 언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는데도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제일 큰 걱정은 아무래도 아이들이죠. 한국말 못하는 한국 아이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도 커요.”

베루엔(39·필리핀) “저도 큰아이가 세 살 때까지 한국말을 잘 못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가르치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 싶어 일찍 어린이집에 보냈죠. 남편 역시 일을 마치고 돌아와 피곤할 텐데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려 노력했어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이들이 아빠만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웃음).”

황정화 “얼마 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학교에서 발음이 정확하다고 칭찬을 듣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제게 발음을 가르쳐줄 정도니까 기분이 좋죠.”

박클라라 “다행이네요. 저는 결혼 초 키르기스스탄에 살다 큰아이가 다섯 살 될 때 한국으로 왔는데, 어느 날 아이가 외국인 엄마를 부끄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2년 전이니 그때만 해도 한국에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았거든요. 다문화가정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잘못된 사회 분위기가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베루엔 “맞아요. 한국에는 외국인에게 약간 배타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영어로 길을 물으려는데 도망을 가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험을 자주 했거든요.”

이연 “저는 택시를 탔다가 ‘말을 제대로 못하면 택시를 타지 말라’는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저는 괜찮은데 혹시 우리 아이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까 걱정이죠.”

황정화 “저는 가르치기보다는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칼날이 안쪽을 향하는 한국과 달리 동남아 국가 대부분은 칼날을 바깥쪽으로 하고 과일을 깎거든요. 그냥 방식이 다른 것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깎든 잘 깎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연 “그래도 보통의 한국인은 친절하지 않나요? 저는 살림하면서 주변 이웃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장 보는 것부터 요리하는 것까지요. 한국에는 따뜻한 정이 있는 것 같아요.”

베루엔 “저도 그래요. 아이 언어 문제로 고민할 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웃 분들도 아이에게 일부러 인사를 시키면서 친근하게 대해주셨죠.”

박클라라 “사회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집안에서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사실 다문화가정에는 여러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언어라든지 문화 차이라든지, 남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 입장에서는 20년 넘게 살면서 경험한 모국의 문화를 한순간에 버리기 쉽지 않거든요.”

황정화 “결혼이주여성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완벽한 한국 남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살아보면 아니거든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니더니 지금은 잡아달라고 해도 혼자 가잖아요(웃음).”

이연 “맞아요. 하기야 항상 다정다감할 순 없겠죠. 제가 볼 때 한국 남자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요. 힘들 수밖에요. 여성들도 핑크 안경(한국 남자에게 갖는 환상)을 벗어야 해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우리집에 살진 않으니까요(웃음).”

베루엔 “한국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아져서 그런지 요즘은 주변에서 많이 배려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힘든 점은 없는지 챙겨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고마운 일이지만 보호받는 느낌보다는 (일반 가정과) ‘똑같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박클라라 “저는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으면 더욱 좋겠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거죠.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더 많아질 텐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려면 ‘힐끔거리는 눈빛’이나 ‘경계하는 목소리’가 먼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한국이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G

글·장원석 기자

페루 전통의상을 곱게 차려입은 자매들. 뒷줄 왼쪽부터 여덟째 안나, 넷째 루스마리아, 첫째 메체, 아홉째 앙헬리카, 다섯째 수산나. 얼마 전 출산한 여섯째 엘다는 참석하지 못했다.

“정 많은 한국남자들이 최고”

결혼이주 페루 6자매 “시어머니는 한국어 선생님… 고부갈등 없어요”

“엊그제 또 제사 지냈어?”

“언니는 그 많은 제사음식 어떻게 다 준비해? 우리 시댁은 제사를 안 지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지난 9월 초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가정집,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는 거실에 다섯 자매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까닭에 그들의 수다는 그칠 줄 모른다. 시댁 식구 이야기며 명절음식 장만 걱정까지 누가 들어봐도 여느 한국인 며느리들의 대화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점이 있다.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품새로 보아선 영락없는 한국 아줌마지만, 이들은 모두 남미 페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자매들이다. 큰언니 메체(47)부터 넷째 루스마리아(38), 다섯째 수산나(35), 여섯째 엘다(33), 여덟째 안나(28), 아홉째 앙헬리카(26)까지 아홉 명의 자매 중에 여섯 명이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스무 시간가량 걸리는 페루는 우리에게는 ‘잉카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거리로 보나 문화로 보나 페루는 그리 가까운 나라가 아니다. 여섯 자매의 생각도 비슷하다.

14년 전 한국으로 처음 시집온 다섯째 수산나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다. 평소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페루의 한국 식당에 손님으로 온 한국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머나먼 나라로 시집오면서 처음엔 두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정 많은 한국 사람의 문화에 푹 빠져버렸다. 무엇보다 페루 남자보다 자상한 남편에게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는 언니와 동생들을 하나둘 한국으로 불러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섯 자매가 한국으로 왔다.

이들의 고향은 페루 수도 리마에서 자동차로 스무 시간이 걸리는 산골 마을이다. 이들 자매의 가족은 그곳에서도 소문난 ‘딸 부잣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열세 남매 중 네 명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뜨고, 아홉 자매만 남았기 때문이다.

여섯 자매는 모두 경상도 남자와 결혼했다. 무뚝뚝하기로 이름난 경상도 남자들이지만, 이들 자매에겐 책임감 강하고 정 많은 ‘1등 신랑감’들이다. 메체와 안나·앙헬리카는 포항, 루스마리아와 수산나는 부산, 엘다는 대구에 산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책임감 강한 1등 신랑감!

이날은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한 여섯째 엘다를 뺀 다섯 자매가 모였다. 한 달 전 이사 온 넷째 루스마리아의 집들이 겸해서다.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추석 음식에 관심이 모아졌다. 처음 명절을 쇨 때만 해도 우왕좌왕했지만, 이제는 제법 한국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 차리는 데에도 익숙해졌다.

“처음엔 제사를 지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생선과 고기의 위치부터, 과일 종류까지 외워야 할 게 한두 가지여야죠.” 넷째인 루스마리아가 말을 이었다.

“한국은 ‘지짐’(전)을 많이 해먹잖아요? 그런데 지짐을 하는 데 손이 참 많이 가요. 온종일 앉아서 부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페루처럼 튀김을 해먹으면 좋을 텐데’라고요.”

다섯째 수산나가 거든다. “저는 호칭이 진짜 어려웠어요. 시누이가 두 명인데, 둘 다 이미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누이를 ‘아가씨’라고 부르잖아요. 처음에는 결혼한 아줌마한테 왜 ‘아가씨’라고 부르나 싶었죠. 믿기 힘들어 국어사전까지 찾아봤다니까요(웃음).”

맏언니 메체는 한국에 와서 처음 맞은 명절에 한국 음식을 준비하는 게 서툴러 시댁 어른들에게 페루식 스파게티를 대접해야 했던 해프닝을 들려준다. “한국 음식 반, 페루 스파게티 반 이렇게 준비했는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시댁 어르신들이 페루 스파게티를 아주 좋아해 주셨어요. 참 다행이었지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자매의 아이들. 왼쪽부터 아홉째의 딸 수민 양, 다섯째 수산나의 딸 효빈 양, 여덟째 안나의 딸 지은 양.

문화가 같은 한국 며느리들에게도 ‘고부 갈등’은 피해 가기 어려운 벽이다. 그런데 문화도, 언어도 다른 이들에게는 오죽했을까? 그런데 이들은 의외로 고부 갈등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시집오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다는 수산나는 오히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덕분에 한국어를 금방 배울 수 있었다고 미소를 지었다.

“온종일 어머니랑 시간을 지내다 보니 어머니 말투를 그대로 닮아가요. 지금도 대화하다 할 말이 생각 안 나면, ‘뭐라 해야카노’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꼭 그러시거든요. 한국에 왔으면 한국문화에 맞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취향에 맞추다 보니 어려울 일이 없죠. 오히려 지금은 엄마같이 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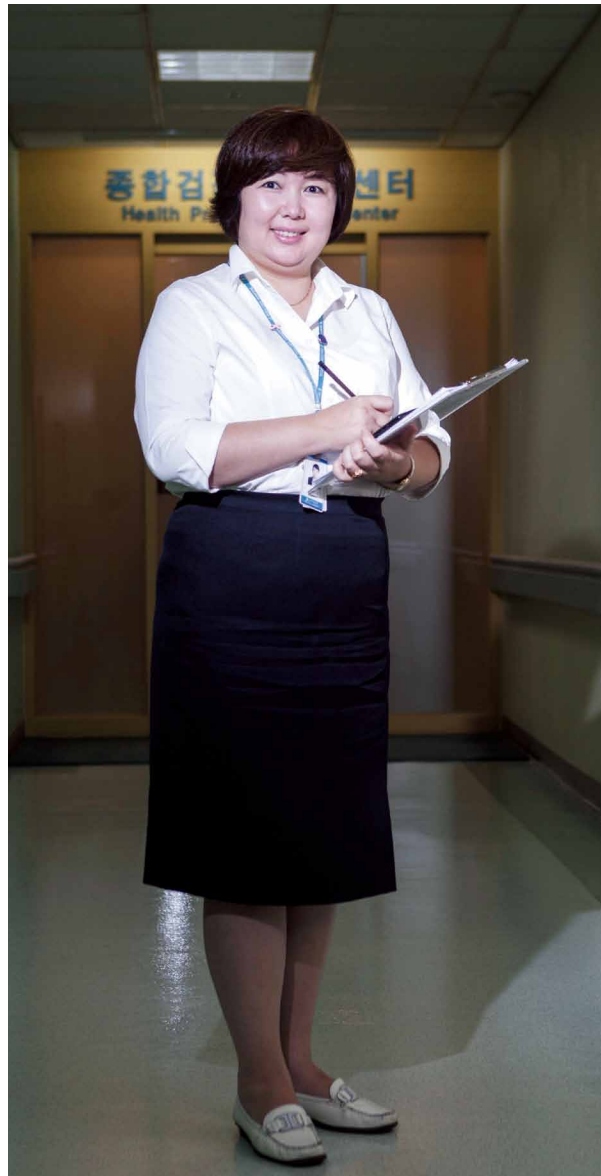
이번 추석도 자매들은 각자의 시댁에서 어김없이 한국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페루에서 온 다섯 며느리는 이구동성으로 “우리 사전에 명절증후군은 없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글·백승아 객원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다른 문화’를 무기로 새 일자리 개척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기… “언어·문화를 아니까 외국인 환자들이 좋아해요”

인하대병원 코디네이터 스베틀라나씨가 러시아 의료관광객과 상담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스베틀라나씨는 인하대병원에서 러시아 관광객을 전담하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다.

의료 관광을 오는 외국인 환자 수가 해마다 늘면서 다문화 여성들의 취업문도 한층 넓어졌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출국할 때까지의 과정을 안내하는 직업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이들의 장점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외국인 환자와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친근함 덕분에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 스베틀라나씨는 이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중 한 명이다.

9월 9일 오후 3시 인하대병원 진료실. 러시아에서 온 환자 2명이 종합검진 결과에 대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인 아브라크마노바 스베틀라나(37)씨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앉아 있었다. 의사의 설명을 환자에게 알기 쉽게 전하고, 환자의 궁금증을 다시 의사에게 이야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진료가 끝나자 스베틀라나씨는 진료 시간에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스베틀라나씨의 설명에 환자들은 만족스러워했다.

스베틀라나씨는 2011년 6월부터 인하대병원에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 그의 주 고객은 그와 언어·문화가 같은 러시아 환자가 대부분이다. 러시아 의료 관광객이 한국에 오기 전 의뢰서를 받고, 공항으로 직접 마중을 나가며 숙소까지 챙겨준다. 병원에선 의사의 설명을 통역하고 진료·검사에 대해 상세히 전달해 준다. 주변 관광지와 장 볼 곳 등 세세한 부분을 돌보는 것도 그의 몫이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월 10여 명 남짓하던 환자 수는 어느새 100여 명으로 늘었다. 그를 통해 인하대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입소문을 내준 덕분이다. “처음에는 혼자 한국을 찾았던 환자들도 다음에 올 땐 가족들을 함께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뿌듯하죠.” 환자를 많이 유치한 덕분에 인하대병원에서 매달 한 명에게 주는 ‘친절직원’ 상도 받았다.

승진도 빨라 같은 코디네이터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직급이다. 1명이었던 러시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1명 더 늘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서 그가 가진 장점은 환자의 심정을 잘 헤아리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여성이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낯선 나라에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을 잘 알거든요. 건강한 사람도 그런데 환자들은 오죽 불안할까 싶어요.” 스베틀라나씨는 2002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 달 동안 외출도 못했다. 그는 “문화도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아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한국관광공사 교육과정 거쳐 자격시험 합격한 뒤 취업

같은 문화권 출신 환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도 스베틀라나씨의 경쟁력이다.

“러시아에서 온 할머니와 손자가 40일 넘게 병원에 머무른 적이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죠. 서울 동대문 쪽에 있는 한 러시아 식당에서 음식을 사다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진료를 받을 때도 러시아 병원과 한국 병원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알려준다. 그러면 주저하던 환자들도 마음을 열고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취업하기 전엔 우울증을 앓았을 만큼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죠. 다시 의사 일을 하자니 비용과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일자리를 계속 찾으면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09년 스베틀라나씨는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기회를 얻었다. 어렸을 때부터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고, 산부인과 의사였기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란 일자리를 처음 알게 되자마자 기회라고 느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수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꼼꼼히 배워 최우등생으로 졸업했다. 그 후 기회를 얻어 인하대병원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처음 일을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 이외에도 서울 서부여성발전센터,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성공적으로 일하는 비결에 대해 스베틀라나씨는 ‘동료’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일이 어렵고 문화가 달라 힘들 때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잘 챙겨주고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거든요. 늘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일하며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병원을 찾은 후 행복해 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볼 때다. “한 60대 남자 환자가 러시아에서 식도암 판정을 받고 병원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검사 후 오진이었다는 것을 알고 부인에게 전화해 정말 기뻐했죠. 그때 제 역할에 대해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문화 여성들에게 당당히 취업에 도전하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외국인이라는 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신 있게 직장을 다니는 엄마의 모습이 자랑스럽거든요.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노력을 인정받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G

글·남형도 기자 / 사진·이원근 객원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안산원곡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글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학급인 온누리반에서 동화책을 읽고 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냥 친구예요^^"

경기 안산원곡초, 다문화 아이들과 통합수업… 한글 서툰 아이들만 따로 보충수업

"선~생니~임."

2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 까만 히잡을 쓴 여자 아이가 복도 끝에서 또렷한 한국말로 '선생님'을 부르며 뛰어왔다. 이 아이는 금세 온누리반 정상하(34) 교사의 치마 끝에 매달리더니 소곤소곤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다.

10분여의 쉬는 시간 동안 교실과 복도에는 한국 아이들을 비롯해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거나 선생님들 주위를 돌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지난 9월 10일 오전에 찾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안산원곡초등학교 풍경이다. 이 학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공립학교다. 총 309명의 학생 중 189명(61퍼센트)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다. 하지만 피부색만 다양할 뿐 공부하고 뛰노는 모습은 한국의 여느 초등학생 모습과 비슷했다.

주변이 공단 지역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이 학교도 국내 가정의 아이들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해마다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6학년 아이들의 29퍼센트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인 데 비해, 1학년은 85.8퍼센트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 학교는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특별학급인 온누리반을 운영해 왔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이 학교에 입학하면 일단 일반 학급에 배정받아 한국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으나, 이 중 한글을 읽고 쓰는 게 서툰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별도로 온누리반에서 주당 10시간 내외의 한국어 보충 수업을 받는다.

2009년 당시 1개 학급에 불과했던 온누리반은 현재 3개 학급으로 늘었다. 학교는 온누리반 외에 한국어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예비학교 1개반도 운영 중이다.

이날 정 교사에게 달려온 아이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라모바(가명·11) 학생이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 온 라모바도 일반 학급과 온누리반을 오가며 수업을 받고 있다. 중국 국적인 이진가택(9)도 지난해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중도 입국해 입학했다. 학교에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됐는데 벌써 한국말이 익숙하다. 이진가택은 "최근에 태권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 지금 빨간띠"라고 자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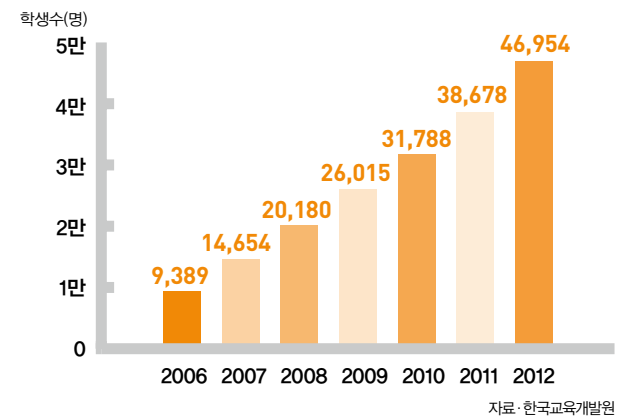
어울림 교육 통해 각자의 문화존중 습관 배워

이 학교의 다문화가정 아이들 중 70퍼센트가 한 부모 이상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다. 이 밖에 중동, 아프리카, 베트남 등 총 15개국 출신의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공존한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특별한' 아이들로 여겨질 여지가 없는 환경이다. 이 때문에 학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특별 대우하지 않고, 한국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상생'하는 것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는 문화를 만들어 '누가 더 특별하고, 누가 더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마침 운동장에선 다양한 피부색의 아이들이 모여 '꼬리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온누리 학급과 일반 학급, 예비 학급 등 3개 학급의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신나게 뛰어 놀았다.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어울림 수업, 즉 통합형 교육프로그램의 하나였다.

어울림, 상생 교육은 한국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한 사례로 지난해 고학년 아이들의 음악 수업에 아프리카 전통 음악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콩고 출신의 부모를 둔 알리야(9)가 그 반에 초대돼 아프리카 춤을 선보여 아이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아이들은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아프리카 사람들의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연도별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수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처음엔 피부색이 달라 마음을 열기 꺼려하던 소수 인종의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당당히 얘기하고 교류하고 있다. 히잡을 쓰고 다니는 라모바는 처음엔 장난삼아 히잡을 벗기려고 하는 아이들 때문에 신경이 쓰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모습을 특별하게 보지 않는다.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히잡을 쓰는 것이 그들이 가진 종교(무슬림)의 문화이자 지켜줘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곱슬머리인 알리야가 머리를 갈래갈래 따고 오는 것을 호기심으로 쳐다보던 아이들도 이제는 "예쁘다, 부럽다"며 인종의 다양성을 장점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학교에선 이중언어 강사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모국어 수업도 진행 중이다.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모국의 문화·역사·지리 등을 주제로 신문을 만들어 2학기 중 각 학급에 배포할 예정이다. 신문을 만드는 아이들은 한국 및 다른 국적의 학생들에게 교육기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모범으로 삼아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베트남인으로 결혼이주 가정의 자녀인 선주(가명·9)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직 한글을 읽는 게 서툴러 온누리반에서 일주일에 서너 시간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 선주에게도 추석은 기다려지는 명절이다. 선주는 "설이나 추석 명절에 한복을 입어본 적이 있다"고 자랑하며 "곧 다가올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베트남 쌀국수 가게를 하는 엄마를 돕겠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G

글·박미숙 기자

대전의 다문화 주부들이 만든 요리봉사단 '아이엠아시아' 회원들. 매달 두 차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서 받은 사랑 되돌려주고 싶은 맘"

대전시 다문화주부 20여 명, 매달 두 차례씩 동네 어르신들께 고향 요리 대접

"이거 아주 맛있네, 고마워요, 애기엄마." "한국에서 살려고 멀리서 온 처자들이 고생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음식까지 대접해주고, 고마워."

9월 12일, 대전 서구 월평동 사회복지관에 모인 100여명의 지역 노인들은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음식으로 배불리 식사를 했다. 필리핀식 잡채인 판싯, 베트남 튀김만두인 짜조, 인도네시아식 닭가슴살볶음밥 등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대접을 받은 노인들은 "동남아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한국 음식과 비슷하고 맛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차려진 음식은 이주 여성들로 구성된 요리봉사단 '아이엠아시아(I'm Asia)'가 만들어 내왔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대전에 정착해 살고 있는 아이엠아시아 봉사단원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이주 여성들이다. 대개 사회적 지원을 받는 입장이던 이들이 되레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몇몇 이주 여성들이 대전 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따면서부터였다.

요리사로 취직할 수 있겠다는 부푼 기대감도 잠시뿐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허드렛일만 주어지는 등 식당에서의 고용 차별은 심각했다.

실망한 이주 여성들을 본 복지관 관계자들은 "이주 여성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식당을 우리가 직접 운영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런 아이디어로 고용노동부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응모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지난해 4월, 지원받은 자금으로 '아이엠아시아'라는 사회적기업 식당을 열었다. 현재 자격증을 딴 이주 여성 7명이 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요리봉사 활동은 식당에 취업한 여성들이 "한국에서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다"고 자원해 시작됐다. 요리를 배우면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다며 뜻있는 이주 여성들이 하나둘 모였다. 아이엠아시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20여 명의 사람들로 출발한 다문화주부 요리봉사단은 올해 5월부터 한 달에 두 번씩 봉사활동에 나섰다. 지역 복지관으로 찾아가 무료 급식을 먹는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식당으로 초대해 아시아 요리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추석을 맞아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행사도 벌일 계획이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아이엠아시아 식당으로 초대해 아시아 요리를 대접한다.

이웃을 돕자는 마음에서 시작한 봉사활동이지만 몸은 고되다. 100인분이 넘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식당 직원들은 평소보다 3~4시간 일찍 출근해 쉬는 시간도 없이 재료를 다듬는다. 전업주부인 봉사단원들은 시댁 어른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와 소매를 걷어붙인다. 요리에 능숙한 아이엠아시아 직원들이 주축이 되고 봉사단원들은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우며 일을 돕는다. 칼을 오래 잡아 손에 물집이 잡히고 무거운 음식 그릇을 드느라 허리도 아프지만 마음만은 뿌듯하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출신 지역은 각기 다르지만 단원들은 요리 봉사를 하며 친구가 됐다. 이제는 요리를 준비하며 서로 별명을 부르고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다.

"봉사활동 통해 어엿한 한국 사람이 됐다는 자신감 얻어"

요리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은오인리친(한국명 송미선·29·베트남 출신)씨는 "동네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집에서 식사를 잘 못하실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요리를 해 음식을 많이 만들어 가면 늘 맛있게 들어주셔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한국 생활 9년 차라는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이엠아시아의 요리사다.

"가게 일은 힘들기보다 재미있어요. 고향 음식도 만들고 돈도 벌고, 무엇보다 출신에 따른 차별이 없다는 게 제일 좋아요. 한국 사람들 도움으로 취업도 하고 한국어도 배웠으니 우리도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봉사를 시작했죠."

다문화주부 요리봉사단의 가장 큰 성과는 이주 여성들도 동등한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대전 시민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가장 보수적인 노인들조차 이주 여성들의 활동에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이주 여성 본인들도 "봉사활동을 하며 어엿한 한국 사람이 됐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한다.

대전 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김준구 사무국장은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들에게서 공공연히 차별과 무시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정부의 지원도 많고 제도적 차원의 개선도 이뤄졌지만, 시민들의 인식 개선은 더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G

글·박미소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서로 알게 되면 편견이 블랙홀로 쏙~

서울 은평구립도서관, 다문화자료실에 외국도서 2천4백여 권 비치해 '문화나눔터' 인기

서울 은평구립도서관 내 다문화자료실에는 전 세계 국가를 소개한 책부터 중국어, 태국어 등 각 나라 언어로 된 도서가 비치돼 있다.

서울 불광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정상우(11)군은 다른 나라 문화에 관심이 많다. 외국인 친구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무슨 놀이를 하며 노는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진 않는다.

정군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은평구립도서관 다문화자료실이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다문화자료실에는 국제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한 2,4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다. 또한 정군처럼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내국인들을 위해 전 세계 국가의 역사·문화 등을 소개한 책부터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 각 나라 언어로 된 도서가 마련돼 있다.

은평구립도서관 다문화자료실은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비치하는 것 외에도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많이 펼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들이 풍부하다.

특히 미국에 관심이 많은 정군은 "이곳에는 나라들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많고, 만화로 설명이 돼 있어 이해하기 쉽고 재밌다"고 말했다. 정군은 주로 미국, 일본, 태국 등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책을 읽는다고 했다.

지난 8월부터 은평구립도서관은 결혼이주여성과 동화구연 전문가가 함께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림책 진짜로 읽는 우리 엄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번 참여하는 인원은 다르지만 평균 20여 명의 아이들이 동화 구연을 듣기 위해 도서관에 온다.

2006년 중국 난징에서 시집 온 왕루이란(34)씨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일곱 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왕루이란씨는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 아이들 앞에서 더듬더듬 동화책을 읽어야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딸이 너무 좋아한다"며 "아이는 말을 매우 잘하는데 엄마가 그만큼 잘하지 못해 걱정이 되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동화도 읽어주면서 한국어를 배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모 1 대 1 멘토링·영어 뮤지컬 등 프로그램도 다양

지난 8월부터 은평구립도서관은 '학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과 1 대 1로 멘토·멘티를 맺어 자녀 교육에 대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이화여자외고 학부모와 결혼이주여성 각각 7명이 참여하고 있다.

왕루이란씨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이미숙(43)씨의 도움을 받고 있다. 최근엔 이미숙씨가 직접 왕루이란씨의 집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이미숙씨는 "왕루이란씨는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좋은 엄마"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아직 언어가 서툴러서 그런지 아이를 키울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제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내년엔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어떤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입학 전에는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요. 서로 언어는 달라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은평구립도서관은 '학부모 멘토링' 서비스 외에 다문화가정 자녀와 내국인 자녀들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지난 1월부터 이화여자외고 학생 20여 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 5명과 함께 '레미제라블' 영어 뮤지컬을 준비 중이다. 이미숙씨의 자녀 이지은(17)양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양은 "다문화가정 동생들에게 연기 지도를 하고 대본을 알려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들 즐거워해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엔 어떻게 애들한테 다가가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뮤지컬 이야기를 하고, 웃고 떠들면서 애들이랑 전보다 훨씬 친해졌어요. 처음엔 생김새만 보고 우리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다들 제 동생 같아요(웃음)." G

글·김혜민 기자

"동화책 읽으면서 엄마의 나라 배워요"

양국 언어로 된 베트남 동화 출간

베트남 최고 화가 8명이 삽화 그려

학고재 · 각권 1만원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다문화를 배워요! 베트남·한국 옛이야기 시리즈〉가 출간됐다. 베트남의 국민 화가로 불리는 도안 흥, 응웬 테 주이 등 베트남 최고의 화가 8명이 삽화를 그린 이 책은 한국, 베트남 어린이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나란히 표기했다.

첫째 권 〈달고 시원한 수박은 어디서 왔을까?〉에는 베트남의 옛이야기와 '토끼의 간', '단군 신화' 등 한국의 옛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베트남의 옛이야기는 강가의 못생긴 어부 쯔씨와 아름다운 여인 미느엉의 슬픈 사랑 이야기인 '쯔씨의 노래'다. 둘째 권 〈두꺼비가 옥황상제의 외삼촌이라고?〉에는 베트남의 지엉 마을에 전해지는 철갑 옷을 입은 천둥과 바람의 신 '지엉 마을 장군'과 한국 옛이야기인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수록돼 있다.

학고재에서 출판한 이 책은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한국·베트남 어린이들이 저마다 다른 각자의 개성을 알며, 두 나라가 어떤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책은 베트남과 한국의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작은 모임인 '스마트 스몰(Smart Small)'에 의해 탄생됐다. 이 모임에는 쩐투꾹, 부이하이투엉 등 베트남 사람들과 한국인으로는 금기형, 정혜진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의 기획자이기도 한 문화체육관광부 금기형 문화도시정책과장은 주 베트남 한국문화원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베트남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우호훈장을 받은 금 과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독서 모임인 '북스타트(Book Start) 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적응을 넘어… 이젠 '가족행복' 찾는다

아빠를 위한 '해피 파파' 등 남편·시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활발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갈 수 있도록 정부는 2007년부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스스로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전민규 기자

경기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조모임을 만들어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 화합에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아버지들의 자조모임 '해피 파파'는 지난 9월 7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을 초대해 마술 체험과 가족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열고 이름 그대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열다섯 가족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작한 행사에 모두 열아홉 가족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를 담당한 안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실의 신미정씨는 "해피 파파는 올 3월부터 지원센터의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버지들의 자조모임"이라며 "현재 8명의 다문화가족 아버지가 회원으로 있으며 매주 일요일마다 아버지들은 기타를 함께 배우고, 한 달에 한 번 가족들이 모두 모여 체육활동을 하거나 MT를 간다"고 전했다. 해피 파파가 마술체험 및 가족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공개적으로 연 것은 보다 많은 다문화가족의 아버지들이 해피 파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안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해피 파파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출신 국가별, 그리고 무용, 한국어 교육, 운전면허 등 다른 주제로 10개 정도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전국의 2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만든 자조모임들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또 하나의 지원 세력이 되고 있다.

자조모임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처음 만들어진 2007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해 2010년 무렵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서적인 외로움을 달래고,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기 위해 시작돼 지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모임이 만들어져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국 2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구심점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지원센터 박은숙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결혼이주자 5만7천명, 남편이나 시부모 등 다른 가족 2만2,800명이 자조모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현재 자조모임은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시부모, 배우자,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되며 정기모임과 수시모임을 통해 한국생활 정보 공유와 문화교류·체험활동, 자기역량 강화 및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무지개 자조모임'은 동화책 읽어 주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나라의 전래 동화를 번역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아 취업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2009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수시네 공방 모임'은 포크아트 작품제작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취업 역량도 키우고 있다. 공방 모임에서 만든 포크아트 작품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안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9월 7일 안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조모임 해피 파파가 주최한 마술 체험과 가족레크리에이션 행사 참가 가족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밖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다문화가족 꿈나무들을 위해 활동을 펼치는 곳이 다문화여성연합이다.

다문화여성연합은 2012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한 '다문화여성연합 사랑의 장학금'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2년 5월부터 모금을 시작해 지난 1월 26일 다문화여성연합 1주년 활동보고회 자리에서 다문화가족 학생 5명에게 첫번째 장학금을 전달했다.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다문화여성연합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미국 유학을 추진, 지난 1월 미국 미네소타주의 세인트폴 고등학교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매년 '글로벌 유학생' 1명을 보내기로 했다.

최근 선발된 다문화여성연합의 글로벌 유학생 1호는 중국인 어머니를 둔 고교생 오창선(17·서울)군이다. 선발된 학생은 항공료와 용돈 정도만 부담하며, 나머지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물론 홈스테이 비용도 학교 측이 부담한다.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을 벌이는 결혼이주 여성단체도 있다. 지난해 결성된 한국이주여성연합회는 올해 사회적 기업으로 '한사랑 문화사업단'을 인증받아 서울 지역 학교를 찾아다니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 프로젝트 활동을 펼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대한 문의는 이곳으로!
전국 다누리콜센터 ☎ 1577-5432

다문화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상대 입장 배려하는 여유 가져야

9월 9일 유엔이 발표한 '2013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156개 국가를 상대로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41위를 기록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한국 국민의 행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난 8년간 한국인의 행복도는 꾸준히 향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이 결혼 또는 노동 인력 등으로 꾸준히 한국에 유입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는 지금 인구 100명 중 3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울릉도, 강화도, 완도, 거제도 같은 섬지역 등에서도 외국인을 만날 수 있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다문화 사회가 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거주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인(선주민)들은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공감 능력은 유아가 아직 말을 하기 이전 어머니와 유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작용과 관련이 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예상하면서 그의 상황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주는 다문화 인식개선 정책도 국민들이 공감 능력을 키워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생산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상호존중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 결과가 바로 행복일 것이다.

두번째,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도 생활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배우자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가장 밀접하게 다문화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주역들이다. 가정 및 자녀와 연관된 생활세계, 자신의 경제활동, 학업, 자조모임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가장 가까운 가족, 학교, 지역사회,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정책으로 노력할 부분이 있다. 국내 거주 한국인과 외국인, 이민 및 학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국민에 대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가치관 형성, 대국민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외교활동, 국격 향상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비교해 2012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 교육 문제를 꼽는 응답자는 감소한 반면 편견과 차별을 꼽는 이들이 크게 증가했다. 일자리 교육, 일자리 연계와 관련된 결혼 이민자의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 150만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더불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취업기관을 중심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최근 8년간 정부와 지자체, 기업, 민간기구, 대학 및 전문기관 등에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그동안의 노력을 더 잘 다듬어 세계로 도약하는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행복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G

글 · 강복정(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본부장)

Daegu2013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

2013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 장애인들의 꿈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Daegu2013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The 33th National Sports Games For The Disabled
2013. 9. 30(월) ~ 10. 4(금)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대구광역시,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장애인체육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2012 런던올림픽 태권도 여자 67킬로그램급 준결승에 출전한 황경선이 슬로베니아의 프란카 아니크를 맞아 머리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다.

"태권도는 한국이 전 세계에 준 선물"

2020년 하계올림픽 25개 핵심 종목으로 확정… 일본 가라테·중국 우슈도 못 이룬 쾌거

"You Korean? You know Taekwo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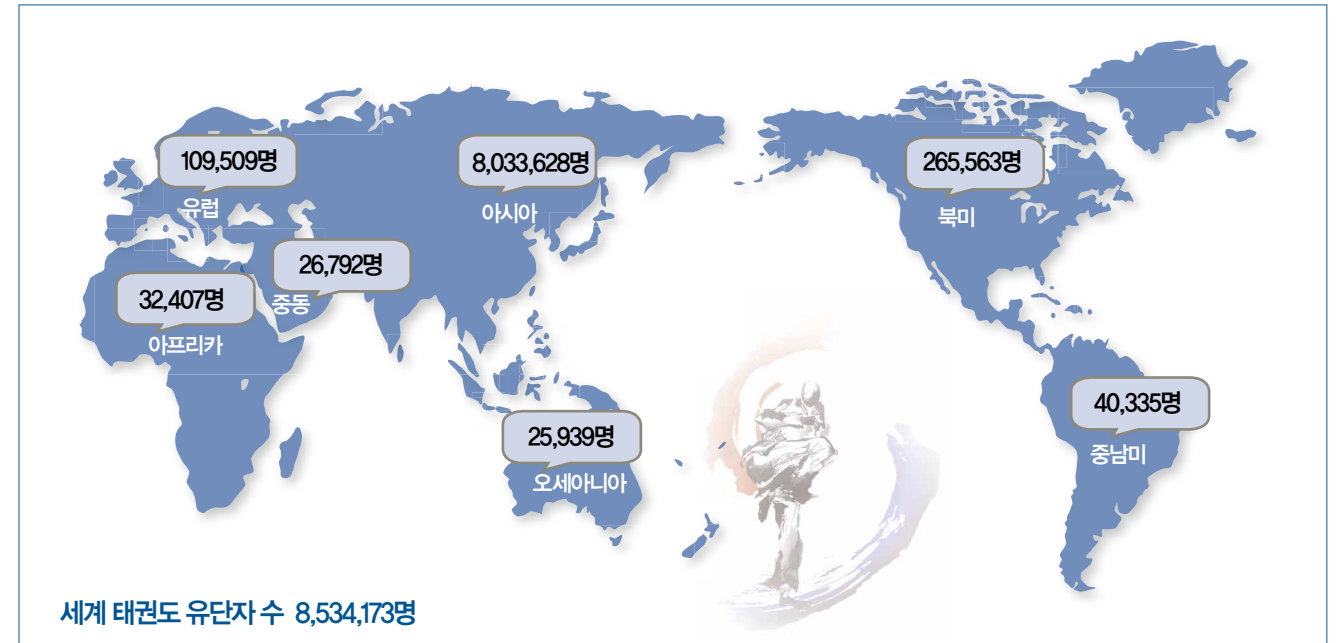
"……."

"I like Taekwondo."

어학연수 이틀째, 태권도를 아느냐고 묻는 외국인의 질문에 나는 답하지 못했다. 태권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할 경우 길어질 대화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대답이 없는 나를 앞에 두고 동작까지 시연해가며 자신의 태권도 사랑을 설파했다.

만약 6개월 뒤에 만났다면 우리는 아마 태권도 이야기를 하느라 맥주 3캔 정도는 비웠을지 모른다. 8년 전 호주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겪은 일이다.

지금이야 '강남스타일'과 같은 K팝이 한류의 대세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 음악이 이렇게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아무도 K팝을 모르던 그때도 외국인들이 '코리아' 하면 떠올리던 것이 있었다. 바로 태권도다. 우리 태권도 사범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태권도를 알리기 시작한 게 1970년대 초반이니 원조 중에 원조라 할 만하다. '세계 어딜 가도 태권도 도장 없는 나라가 없고, 어느 도장엘 가도 한국인 사범이 없는 곳이 없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태권도는 1994년 올림픽 정식 종목에 편입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태권도보다 국제화가 앞섰던 일본의 가라테, 중국의 우슈도 이뤄내지 못한 성과다. 어느새 태권도는 205개국에서 약 9천만명의 수련생이 즐기는 세계인의 스포츠가 됐다. 국기원이 인증한 유단자만 854만명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아프리카태권도연맹 아흐마드 훌리 회장은 태권도를 두고 "한국이 전 세계에 준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원조 한류' 태권도가 최근 경사를 맞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9월 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25차 총회에서 태권도를 포함한 2020년 하계올림픽 25개 핵심 종목을 확정했다.

이로써 태권도는 2024년 올림픽까지 정식 종목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정식 종목 진입을 노리는 우슈나 가라테의 견제를 뚫고 이뤄낸 성과다. '재미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한동안 올림픽 퇴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만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전자호구 도입, 비디오 판독 확대 등으로 공정성을 높이고 박진감 있는 경기를 선보여 주요 외신과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게 큰 힘이 됐다.

태권도의 올림픽 잔류가 확정되면서 정부도 세계화 작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총회 결정을 계기로 태권도를 인류 평화와 건강에 기여하는 세계인의 문화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태권도 진흥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천만이 눈앞' 전 세계 태권도 유단자 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우선 문체부는 2012년 12개국 12명 수준인 해외 파견 태권도 사범 수를 2015년까지 80여 개국 1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파견 사범들은 태권도 기술 전파라는 기본 임무 외에도 현지 문화원과 연계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한류 콘텐츠로서 태권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들이 파견 국가의 주요 스포츠 인사와 교류하면서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 구축의 매개체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세계 태권도 허브인 '태권도원'이 내년 3월 전북 무주에 문을 연다. 태권도원 내에는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박물관이 들어서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태권도 체험관과 연수시설 등이 갖춰진다.

여기에 태권도의 역사, 해외 저명사범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태권도원을 '전 세계 태권도 한류 허브'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태권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전 세계 태권도 기술·교육 분야 선도 방안, 태권도 산업 육성 방안, 태권도 국제교류 협력 방안 등 태권도를 '세계인의 콘텐츠'로 키워갈 다양한 방안이 담긴다.

글·장원석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태권한류’ 우리에게 맡겨라

전 세계에 태권도 씨앗 뿌리는 정파사범 3인방…“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

국기원

해외 파견 태권도 사범들은 한류의 주역이다. 조정현 사범이 남아공 라마코카 지역을 찾아 현지 수련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정현 사범

전국 돌며 빈민촌 아이들에게 태권도 알려

2008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제4회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페더급 결승에 오른 흑인 선수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승리를 거두자 그는 경기장에 엎드린 채 한동안 눈물을 쏟았다. 국제대회이긴 해도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가 아닌 이상 금메달을 땄다고 우는 선수는 드물다. 하지만 그에겐 사연이 있었다.

이 흑인 선수의 이름은 던칸 마슬랑구(남아프리카공화국). 가랑꾸와라는 흑인 빈민 지역에서 자란 마슬랑구는 13세 때 학교에서 처음으로 태권도를 배웠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재능을 발휘했고 국가대표급 유망주로 떠올랐다. 2004아테네올림픽에도 출전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출전한 대회마다 준우승에 머물렀고, 2008베이징올림픽에서는 아예 예선에서 탈락했다.

아내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는 결국 2007년 말 도복을 벗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동생과 함께 이벤트 업체를 시작했지만 챔피언을 향한 열정은 쉬 사그라지지 않았다. 스승의 끈질긴 설득까지 더해지자 그는 2008년 9월 도복을 다시 꺼내 입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따냈다.

그에게 다시 도복을 입힌 주인공은 마슬랑구를 5년간 가르쳤던 조정현(43) 사범이다. 조 사범은 국기원이 전 세계 12개국에 파견한 12명의 정파사범 중 한 명이다. 15년째 남아공에 머물며 태권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가대표팀 코치, 육군 태권도 지도사범, 체육부 순회사범으로 활동한다. 대표팀 지도부터 남아공 전역을 돌며 태권도를 알리는 일까지 모두 그의 몫이다.

태권도를 알릴 수 있다면 오지나 빈민촌도 마다하지 않는 그는 맨발로 수련하는 제자들이 안타까워 자신의 신발을 벗어줄 정도로 열정적이다. 조 사범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빈민촌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알리는 일”이라며 “빈민촌 라마코카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운 뒤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며 희망을 갖는 걸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국에 왔다가 돌아갈 때 후원받은 태권도 호구를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직접 껴입고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일화도 현지에선 유명하다. 조 사범은 “태권도를 배우려는 이들의 열정이 가르치려는 나보다 더 대단하다”며 “우리의 태권도를 널리 알리는 국가대표 사범으로서 한국에 돌아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이기수 사범

스리랑카어로 된 태권도 교본 발간

스리랑카에는 이기수(41) 사범이 있다. 1997년 파견된 이 사범은 스리랑카에서 ‘태권도 스승’으로 통한다. 스리랑카 육·해·공군과 경찰이 정식 과목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서다. 특히 스리랑카 경찰은 원래 특공 무술로 가라테를 배우다 이 사범의 가르침을 받은 뒤 태권도로 과목을 바꿨다. 스리랑카에 와 경찰학교 사범이 된 그는 1998년 전국가라테대회에 경찰팀을 이끌고 출전해 우승했다. 그 뒤 스리랑카 경찰은 가라테 대신 태권도를 무술 과목으로 채택했다. 가라테는 태권도보다 10년 앞서 스리랑카에 보급됐었다.

이 사범은 스리랑카태권도협회 기술심판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모든 이들이 이 사범의 제자인 셈이다. 이 사범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꿈을 안고 훈련하는 선수들이 너무 예뻐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태권도 시범 공연 개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군과 경찰에서는 태권도가 인기 스포츠이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아직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스리랑카의 태권도 수련 인구가 약 2만여 명인데 이중 1만6천명 정도는 군이나 경찰 인력”이라며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태권도를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스리랑카 언어인 ‘싱할라어’로 된 태권도 교본을 발간한 것도 같은 취지다. 싱할라어 태권도 교본은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다. 이 사범은 “정부 파견으로 나와 있는 만큼 태권도를 문화·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한다”며 “태권도가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도 이정희 사범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희망 전하다

12명의 정파사범 중 가장 늦게(2011년) 파견된 이정희(40) 사범은 정식 파견만 늦었을 뿐 인도에서 16년째 태권도를 알리고 있는 ‘태권도 대부’다. 국내에서 실업팀 선수로 뛰던 이 사범은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홀로 인도 땅을 밟았다. 인도에 태권도가 소개된 건 1976년이지만 지난 35년 동안 인도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거둔 성적은 동메달 1개였다. 하지만 2012년 이 사범이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팀은 확연히 달라졌다.

올해 7월 열린 춘천국제태권도대회에서 인도 대표팀은 금메달 2개를 포함해 5개의 메달을 따냈다. 이를 포함해 대표팀은 지난 1년간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 25개를 휩쓸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해본 좋은 성적이었다. 이 사범은 “선수들이 잘했을 뿐”이라고 공을 돌리면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기 시작하자 인도 정부에서도 태권도를 엘리트 종목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의 태권도 수련 인구는 4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산층에게는 건강을 위한 스포츠로, 가난한 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스포츠로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 사범은 올해 11월 열릴 ‘제1회 대사배 국기원컵 전국 태권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인도 전역에 태권도 도장과 태권도 아카데미가 생겨나 인도 국민들이 태권도를 국기로 수련하는 게 나의 꿈”이라며 “특히 빈부 격차와 신분제의 틀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태권도를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G

글·장원석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주민 생존 위한 '물 공급'에 의견 일치

군청·철도공단·시행사 모두 법적 책임 유무를 떠나 비용 분담에 합의

시행사는 산익마을에 공용 물탱크를 설치해 긴급한 물부족 문제에 대응했다.

1월 26일 지하수맥을 찾기 위해 여섯번째로 뚫은 구멍에서 지하수가 터졌다. 그러나 이 지하수원은 부족한 수량으로 산익마을의 생활용수를 댈 수 없었다.

어느날 갑자기 우물이 말라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65가구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지하수, 농업용수, 하천수 등이 모두 메말라 버린 것이다. 평온하던 마을에 재앙 같은 일이 벌어졌다. 2010년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산익마을에서 생긴 일이다.

마을 주민들은 인근에서 진행 중인 터널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사 때문에 지하수 물길이 끊겼다는 이야기다. 터널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마산~함안 경전선 복선화 전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었다. 공사는 마을에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암벽 폭파 등 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마을 가옥들 벽에 금이 가기도 했다.

터널 굴착공사를 시행하던 대림산업은 급한 대로 급수차를 구입해 마을에 식수를 공급했다. 식수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관정 굴착을 5차례 진행했다. 수원을 찾긴 했지만 수질이 낮아 식수로는 부적합했다. 2011년 1월 6번째 관정을 뚫고 나서야 그나마 수질이 나은 수원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정수기와 10톤급 물탱크, 관로를 설치해 식수를 보급키로 했다. 마을까지 물을 전달하는 펌프와 정수기 유지비 등 7년 동안 1,800만원의 예산이 들 예정이었다. 대림산업은 7년치 유지비를 마을에 지급했다. 마을 주민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으니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어렵게 뚫은 6차 관정에서 물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유일한 식수원이 마른 것이다. 주민들은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대림산업은 다시 급수차를 불러 생활용수를 마을에 계속 공급했다. 하지만 급수차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했다. 회사는 공사가 끝나면 현장에서 완전 철수해야 한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언제까지나 급수를 해줄 입장도, 처지도 아니었다. 급수차는 운영 비용도 많이 든다. 산익마을 생활용수 부족은 상수도 설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급기야 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고충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안군에 털어놓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철도공단 측은 모든 사업을 시행사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턴키 사업이기 때문에 공단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함안군 역시 공사를 시행하는 대림산업과 마을 주민 사이의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함안군이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과 시행사는 더욱 갑갑해졌다.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했다. 주민들은 함안군에 상수도 급수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급수차를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존 저수지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고 했다. 암벽 발파 진동으로 균열된 가옥과 축사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가옥 7개동, 축사 2개동에 총 2,45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주택 균열 수선비용 등 지급도 일괄 타결

권익위는 민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함께 법률관계 등도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2월 14일 산익마을을 찾았다. 고충민원 실지조사를 맡은 권익위 양용석 조사관은 주민들과 사업자·공공기관 등을 모두 한자리에 모았다. 양 조사관은 이 자리에서 "공익사업인 철도가 개설되면 공공에게는 편익이 있지만 소음 등의 피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원을 신청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선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제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사업시행자나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는 훨씬 커진다. 주민들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 수년 동안 마을에 생활용수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사정을 들은 양 조사관은 함안군과 철도공단엔 법적 책임이 없고 시공사도 3년여 동안 나름대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 해도 함안군과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3년여 동안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상수도가 들어오기까지 2년 더 생활용수 부족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공공기관이라면 이런 문제를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생존 문제와 직결된 급수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급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논의의 방향을 잡았다. 또 관계자들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모았다.

권익위 중재 이후 관계자들의 입장이 변하기 시작했다. 시행사는 함안군에서 상수도 공급 일정만 확정해준다면 그때까지 사용할 급수차를 구입하고 그 부대 비용을 함안군에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턴키 사업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던 철도공단도 권익위가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식수 등 공급에 필요한 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의향을 밝혔다. 권익위는 함안군 상수도 공급 일정을 확정할 때까지 드는 소요 비용을 함안군·철도공단·시공사 등과 논의했다. 소요 비용을 확정해 시행사와 철도공단이 이 비용을 함안군에 예치하는 한편, 함안군은 상수도 공급 전까지 산익마을에 식수를 공급했다.

주택 균열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수선 비용 등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도 일괄 협상해 해결했다. G

글·박상주 기자

위성에서 바라본 산익마을. 마을을 가로지르는 경전선 공사로 마을의 수원이 말라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8호공관정 개발위치
3호공관정 개발위치
산익마을
마산 방향
진주 방향
기존지하수위치
2호공관정 개발위치
1호공관정 개발위치
신설경전철
5호공관정 개발위치
4호공관정개발위치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군산 구불 8길 고군산길

하나로 이어진 4개 섬 걷다 멈추면 풍경이 된다

1 대장봉 정상에서 바라본 장자도. 왼쪽 붉은색 다리가 장자대교다.
2 군산 구불길 이정표. 수풀이 우거져 있지만, 이정표가 있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3 대장봉 구불길의 사철 상록수 숲은 아늑한 느낌이다.

고군산군도는 선유도를 비롯해 무녀도·장자도·대장도 등 4개의 섬을 엮은 군(群)이다. 중심은 선유도(仙遊島)다. 서울 사람들은 선유도라고 하면 한강 양화대교와 연결되는 섬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신선이 노니는 섬'이란 이름은 서울보다 군산 선유도에 더 잘 어울린다.

선유도로 가기 위해서는 군산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야 한다. 보통 섬의 경우 차를 실을 수 있는 큰 배가 다니지만, 선유도에는 그런 배가 없다. 그래서 섬을 방문하는 모든 이는 차 없이 두 발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도보 여행자에게는 더 좋다.

지난 9월 1일, 여객선터미널 안 행선지를 표시하는 전광판은 선유도·어청도 등을 안내하고 있었다. 어쩐지 선유도보다는 어청도가 더 눈에 들어왔다. 곽재구 시인의 〈포구 기행〉에 소개됐던 그 섬, 어청도. 흐린 기억이지만, 시인이 예찬한 여러 포구 중 어청도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포구 기행〉에서 처연한 분위기가 물씬하다고 묘사했던 섬. 아직도 배를 타고 서너 시간을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인지 더 끌린다.

배는 50분 남짓 물을 갈라 선유도 선착장에 닿았다. 노란색 페인트로 '선유민박'이라고 쓴 미니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25인승 버스를 혼자 타고 3분을 달려 선유도 중심으로 이동했다. 해경출장소가 있는 이곳은 10여 군데의 민박과 음식점이 밀집한 곳으로 여행객들은 여기에서 여장을 푼다.

선유도에서 곧장 자전거를 빌려 여행에 나섰다. 방사형으로 펴져 있는 4개 섬을 연도교로 잇는 고군산군도에서는 방위를 제대로 잡기가 쉽지 않다. 가운데 자리한 선유도도 백사장을 연결고리로 마치 두 개의 섬이 맞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섬의 중심인 해경출장소를 등지고 시선을 바다로 향하면 왼편으로 다리, 오른편으로 백사장과 황토색을 띠는 암벽이 보인다. 다리는 장자도로 이어진 장자대교, 암벽은 망주봉이다. 장자대교를 건너면 장자도·대장도에 이른다. 망주봉 쪽은 백사장과 선유도의 끝 몽돌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이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장자도로 향했다. 콘크리트 덩어리를 이어 만든 다리를 건너면 또다시 작은 다리가 나온다. 다리를 둘 건너니 순식간에 섬의 북단 대장도다. 대장도의 '꿈꾸는바다펜션' 뒤로 보이는 암봉이 바로 대장봉(143미터)이다.

자전거나 도보로 대장봉 트레킹

현재 8개 코스가 조성된 군산 구불길은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수풀이 우거진 길을 여유·풍요·자유를 느끼며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길'이라는 뜻이다. 이리저리 구부러진 모양을 뜻하는 '구불구불'에서 따왔단다. 또 한자로 이름을 붙이면, 오래 머무를 '구(久)'자에 풀 우거질 '불(茀)'자라고 한다.

대장봉 산책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풀 우거질 '불(茀)'자와 잘 어울리는 수풀 무성한 길이 나타났다.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구불길' 이정표가 없었더라면 길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날카로운 억새 잎이 반바지 차림의 다리를 할퀴었다. 반면에 머리 위로는 싱싱하고 푸른 상록수가 빽빽해 서늘한 기운이 가득했다.

수풀을 헤치고 가다 느닷없이 바다 게를 만났다. 갯벌에서 올라와 길을 가로질러 수풀로 내빼는 것이 마치 생쥐나 날다람쥐 같다.

대장도 입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20분만 올라가면 산 정상이다. 중간에 암벽 구간이 있는데, 굳이 등산화를 신지 않더라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슬리퍼나 샌들은 벗겨질 위험이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 암벽을 오르며 내려다보이는 푸른 바다가 일품이다.

섬 남쪽은 소나무 숲에 가려 보이지 않고, 북쪽과 서쪽 바다가

훤하다. 사방에 크고 작은 섬이 많아 수면은 호수처럼 잔잔하다. 수면 위로 김 양식을 위해 설치한 스티로폼이 둥둥 떠 있다.

대장봉에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내려오는 길, 가파른 암벽을 몇 개 건너니 장자할매바위가 보이는 초막을 만났다. 스러져가는 초막은 아마도 제를 지낼 때 썼던 것 같다.

대장봉을 위시로 섬을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은 약 1킬로미터, 30분 정도 걸린다. 짧은 산행으로 안성맞춤이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대장도·장자도를 거쳐 선유도로 나왔다. 해경파출소에서 망주봉을 향해 선유도 북단 몽돌해수욕장으로 길을 잡았다. 가는 길, 서쪽으로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후 6~7시경이면 그림 같은 낙조를 볼 수 있을 것만 같다. 서둘러 몽돌해수욕장까지 간 뒤 되돌아나와 6시 30분경 망주봉 아래 백사장에 섰다.

태양이 수면에 맞닿으려면 한 시간 정도는 시간이 남았다. 백사장에 풀썩 주저앉아 태양을 마주했다. 붉게 타는 태양과 호수처럼 잔잔한 수면, 또 그 일직선상에 두 개의 등대가 서 있어 운치가 그만이다. 간간이 백사장 길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까지 있어 사진을 찍기에도 좋다.

전설이 깃든 섬, 무녀도엔 익모초 만발

7시 30분경, 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시간, 지나는 사람들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섰다. 서해안의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낙조를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튿날 무녀도(巫女島)로 방향을 잡았다. 고군산군도의 남쪽, 선착장에서 선유대교를 건너면 섬 입구다. 콘크리트를 상판으로 얹은 다리 가장자리는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어수선하다.

무녀도는 장구 모양의 섬과 그 옆에 술잔처럼 생긴 섬 하나가 붙어 있어 '무당이 상을 차려놓고 춤을 추는 모양'이란 뜻에서 유래했다. 이름 자체가 전설이다. 옛 이름은 '서들이'였다고 한다. 서둘러 일하지 않으면 밥벌이하기 힘들 정도로 물자가 부족한 섬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중앙에는 학교가 하나 있다. 무녀초교 앞을 지나 콘크리트 길을 계속해서 지나면 새만금방조제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연도교 공사가 한창인 무녀도 북동쪽 끝으로 향한다. 연도교의 한 축을 담당할 거대한 기둥은 알파벳 'D'자 모양으로 솟아 있다.

마을 앞을 통과해 모퉁이를 지나니 농로가 나왔다. 양 옆으로 우거진 풀과 야생화를 보니 눈이 선해졌다. 왼편은 바다, 오른편은 논. 9월의 햇살을 받은 벼는 아직 푸른 빛이다. 그러나 이내 황금빛으로 변하고 추수가 시작될 것이다. 아마도 작은 섬에서 이만한 넓이의 논은 간척 사업을 통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덕분에 쭉 뻗은 농로 길이 생겼고, 야생화가 가득한 길이 됐다.

4 무녀도 농로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 익모초 꿀을 따는 호랑나비가 함께 날았다.
5 가을 선유도는 전어 꽃게 고등어 등 수산물이 풍성하다.
6 선유도 해수욕장 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 일몰에 맞춰 이 길을 걸으면 저절로 힐링이 된다.

농로 양편으로 익모초가 만발했다. 줄기는 각이 지고, 꽃대는 옥수수 모양처럼 풍성하다. 옥수수같이 생긴 꽃대에는 작은 꽃들이 수없이 매달려 있다. 옥수수에 꽃이 핀 것 같은 모양이다.

익모초(益母草)는 한자로 '어머니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여성에게 좋은 약초로 산후 조리나 몸이 찬 여성에게 좋다. 예전에는 익모초를 물에 넣고 물엿처럼 끈끈해질 때까지 달인 뒤 환(丸)을 만들어 약재로 썼다. 또 줄기가 둥그렇지 않고 각이 져 있어 육모초로도 불린다. 꿀풀과 식물들이 대체로 이런 모양이다.

농로를 지나면 다시 해안가를 따라 콘크리트 길이 나 있다. 최근에 조성돼 연도교 방향으로 나 있다. 이곳에는 지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아무래도 숙소가 있는 선유도 중심에서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 호랑나비가 있는 농로를 지나 무녀초교 방향으로 가지 않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 무녀염전과 무녀봉 가는 길이다. 남쪽으로 나 있는 무녀봉 가는 길은 산책로로 좋다. 무녀봉에서 내려와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면 선유대교가 나온다. G

글과 사진·김영주(여행 칼럼니스트)

남악산
망주봉
대장봉
대장도
선유도해수욕장
선유초교
선유도 선착장
정자도
선유봉
선유1구
무녀초교
무녀염전
무녀도
무녀봉

여행수첩

고군산군도 선유도로 가는 배편은 달마다 조금씩 다르다. 50분~1시간 정도 걸리는 쾌속선이 하루 3~4회 다닌다. 여기에 주말에는 1회 추가로 운항된다. 왕복 운임은 3만1,950원.
월명여객선 ☎ 063-462-4000

섬 안 먹거리가 풍성하지 않다. 선착장과 해경출장소 부근에 횟집이 몇 곳 있다. 섬에서 나는 바지락으로 바지락칼국수를 내는 집이 많다. 장자도 화이트민박에서 아침으로 내는 백반이 아주 훌륭하다. 묵은지와 파김치 등 밑반찬이 옛날 맛 그대로다. 가격도 7천~8천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식사를 포함한 섬 안의 물가는 비싼 편이다.

너는 콩떡, 나는 깨떡 한가위의 맛, 송편

추석의 유래는 삼국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추석의 절식(節食) 송편이 전통으로 자리 잡은 자취는 그리 오래지 않다. 송편을 해먹는 시기에 관해서는 다양한 기록이 존재한다.

조선 인조 때의 문신 신흠은 〈상촌고〉에 남긴 오언율시에서 "유월이라 유두일 좋은 명절에(佳節流頭日)/ 거친 마을로 내쫓긴 신하로구나(荒村放逐臣)/ 수단을 먹는 것은 토속 따르고(水團遵土俗)/ 송편 빚어 이웃집 선사 하누나(松餠餽鄕鄰)"라며 송편을 유두절 음식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대의 인물인 이식은 〈택당집〉에서 송편을 사월 초파일에 바치는 찬선으로 기술하고 있고, 역시 비슷한 연대의 허균은 〈도문대작〉에서 서울 사람들의 봄철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후에 간행된 이의현의 〈도곡집〉과 유척기의 〈지수재집〉에는 삼월 삼짇날의 시식(時食)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에는 잘 변하지 않아 여름 제사상에 올리는 떡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다 조선 후기 정학유가 지은 〈농가월령가〉에 비로소 송편이 추석의 제사 음식으로 등장한다. 그 이후에 발간된 〈동국세시기〉에는 추석의 절식으로도 나와 있지만, 음력 이월 초하루 중화절에 노비들에게 나이 수대로 나누어주는 식선(食膳)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19세기 말에 왕실과 관청에 그릇을 납품하던 공인 지규식이 남긴 〈하재일기〉에는 추석 무렵 지인과 송편을 나눠 먹고 남긴 "솔향기 풍기는 떡 입에 가득하니(餠膩松香滿口濃)/ 이러한 가을빛을 애지중지하네(一般秋色愛重重)"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송편이 한가위의 절기 음식으로 정착한 것은 조선 말로 짐작된다.

송편에 들어가는 소도 다양하다. 18세기에 나온 〈성호사설〉에는 콩가루 소를 넣는다고 했고 19세기 초의 〈규합총서〉에는 팥, 꿀, 계피, 후추, 건강말(말린 생강가루) 등을, 그 후의 〈동국세시기〉에는 콩, 팥, 검은콩, 꿀에 대추, 미나리도 들어간다고 했다. 19세기 말의 〈시의전서〉에는 거피팥고물, 녹두고물에 꿀·대추는 물론 밤도 넣는다고 했고 대한제국 시절에 나온 〈부인필지〉에는 잣과 호두도 올라 있다.

궁에서도 송편을 해먹었던 모양인데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기록한 1795년의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나오는 '각색 송병'에는 특이하게 돼지고기와 닭고기에다 표고·석이까지 속 재료로 기록되어 있다. 송편은 지역에 따라 크기도 다른데 대체로 북쪽 지방에서는 크게 빚었고 남쪽에서는 작고 예쁘게 만들어 먹었다.

중앙포토

송편을 송병(松餠) 또는 송엽병(松葉餠)이라고도 하는데, 찔 때 솔잎과 같이 찌는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솔잎과 함께 찌면 송편에 솔 향이 배어 맛도 좋아지지만 상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어,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도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추석에 떡을 상당기간 보관할 수 있었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요리법이 아닐 수 없다.

어쨌거나 추석에 해먹는 송편은 특별하다. 추석 송편은 오려송편이라고 해서 햇곡식으로 만든 떡, 그 해의 수확에 감사를 드리며 조상의 차례상에 바치던 것이다. 송편은 온달 모양의 동그란 떡에 소를 넣고 붙여서 반달 모양으로 만든다. 그 연유는 반달이 점점 커져 보름달이 되듯이, 모든 일이 잘되고 발전하라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추석은 풍요로운 명절이라 백성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빌었을 정도이다.

올 추석에는 그 의미와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온 가족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정성껏 송편을 빚어보면 어떨까. G

글·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음식문화평론가)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열차표 예매의 추억

이맘때면 늘 그랬듯 열차표를 앞다퉈 예매하느라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토막 뉴스로 들려온다. 민족 최대 명절이건만 표를 예매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어렵다. 인터넷 예매도 되지만 열차표는 1분도 안 돼 매진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코레일 기차표 승차권 예매 확실한 성공법'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을 정도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도 서울역에 예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장면은 무척 인상적이다.

그땐 그랬다. 30여 년 전 신문을 보면 귀성열차표 예매를 위해 서울역 광장에서 텐트나 돗자리를 펴고 새우잠을 자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명절 때마다 계속되는 진풍경이었다.

秋夕歸省客에게 알려드립니다

鐵道廳에서는 秋夕歸省客 輸送期間(9.14~9.20)을 定하고 歸省客의 安全과 便宜를 爲해서 다음과 같이 臨時列車運行과 乘車券豫賣를 실시하오니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臨時列車를 增設하여 運行합니다

경부선 : 18개 열차
호남선 : 24개 〃
전라선 : 11개 〃
중앙선 : 16개 〃
장항선 : 13개 〃
기타선 : 5개 〃
계 : 87개 열차

乘車券豫賣窓口를 增設하였읍니다

서울역 : 35개소
용산역 : 10 〃
영등포역 : 13 〃
청량리역 : 6 〃
대전역 : 5 〃
동대구역 : 5 〃
부산역 : 13 〃
계 : 77개소

9.15~16일(양일간)에는 列車를 調整 運行합니다.

1. 하행 전특급열차는 영등포역을 통과합니다.
2. 하행 전보통열차는 노량진역과 장항선 열차는 용산역을 통과합니다.
3. 하행선 열차는 영등포~수원간의 각역을 통과합니다.
4. 서울근교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합니다.
경의선 : 오전9시 이후는 수색역에서 직발합니다.
교외선 : 오전9시 이후는 수색~성북간 운행합니다.
경춘선 : 오후5시이후는 성북~춘천간 운행합니다.

協助事項

1. 승차권 예매는(호남, 전라, 중앙선은 9.7 / 경부, 장항선은 9.9)부터 매일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발매합니다.
2. 역구내 출입 입장권은 발매하지 않읍니다.
3. 단체 및 전세 여객을 취급하지 않읍니다.
4. 승차권을 일단 구입하신분은 반환하여드리지 않읍니다.
5. 침대권과, 각종할인 승차권은 발매하지 않읍니다.
6. 보통열차에도 승차열차를 지정하오니 지정열차에 꼭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15, 16일은 귀성객의 폭주가 예상되오니 미리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鐵道廳

철도청의 1978년 추석 귀성열차표 광고(위)와 2013년 코레일의 역귀성 승차권 안내(아래).

그렇지만 1960년 이전 신문에는 이런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고, 일터를 찾아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명절에만 고향을 찾았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는 구로공단에서 귀향버스 수백 대를 전세 내 공장 근로자를 고향으로 '보내주는' 친절을 베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빨리 갈 수 있는 열차를 선호했다. 오죽했으면 '귀성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겠는가.

철도청 광고 '추석 귀성객' 편(동아일보 1978년 9월 5일)에서는 '추석 귀성객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평범한 헤드라인을 쓰고 있다. 지면 중앙에 열차가 달리는 장면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문구를 쓰고 있다.

'철도청에서는 추석 귀성객 운송기간을 정하고 귀성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임시열차 운행과 승차권 예매를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사진 왼쪽에 87개 열차를 증설하고 77개 역에서 예매를 한다는 정보를 공지, 오른쪽에는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는 추석기간 열차운행 방안과 예매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단순 정보이면서도 '협조 사항'이라고 표기한 점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 나름대로 고객의 관점에서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지면의 오른쪽 부분을 보면 귀찮을 정도로 친절하게 7가지 협조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하행 특급 열차는 영등포역을 통과한다거나, 하행선 열차는 영등포~수원의 각 역을 통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요즘 광고에서는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기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알려주는 것과 찾아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똑같은 매표소를 소비자의 관점인 '표 사는 곳'과 판매자의 관점인 '표 파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그 이름이 바뀌었어도, 고객의 관점에서 정보를 전달하려는 철도청 시절의 진정성만큼은 그대로인 것 같다.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달려가는 열차에 예전보다 더 즐겁게 올랐으면 좋겠다. G

글·김병희(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

〈당신은 행복한가〉

달라이 라마, 하워드 커틀러 지음
문학의 숲 · 1만5천원

"당신이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사랑을 함께 나눌 인간 동료나 친구들이 없다면 고작 애완동물과 정을 나누는 신세가 돼 버릴 것입니다." 600만 티베트인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그의 책 〈당신은 행복한가〉에서 새로운 물음을 던진다. 혼자 행복해도 좋은 것인지, 또 혼자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인생에 주어진 단 하나의 의무는 행복이지만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대답을 남긴다. 관점을 '나'가 아닌 '우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행복한가〉는 달라이 라마와 저명한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러가 대화를 나눈 후 쓴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의 후속작이다. 달라이 라마 특유의 명상적 행복론인 '마음 수행'이 주된 메시지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 분노, 걱정과 같은 감정을 다스려 삶을 헤쳐가는 방법을 주로 이야기 한다면 〈당신은 행복한가〉의 키워드는 '공동체'이다.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그것이 개인의 행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책 속에서 두 사람이 공감하는 공동체의 이점은 실제 사회를 통해 드러난다. 공동체가 끈끈할수록 범죄율·사망률이 낮고 부정부패가 적다는 것이다. 그런 정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사람들의 탈세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망, 즉 타인과의 친밀감 및 소속감이 개인의 안정과 행복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공동체나 사회적 관계 등이 처한 현실은 열악하다. 책 속 조사에 따르면 '삶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미국인은 지난 20년 동안 무려 3배나 증가했다. 4명 중 1명은 '친한 친구나 믿을 만한 벗이 없다'고 답했다. 평균 친구 숫자는 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실의 심각성은 책 속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직업이 없는 스무 살 청년의 실험에서다. 청년은 '누구든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상대가 되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렸다. 이어 그는 '비록 당신을 만난 적은 없지만 당신을 염려한다'고 덧붙였다. 주말이 되자 청년은 낯선 이들로부터 5천 통이 넘는 전화·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달라이 라마와 하워드 커틀러가 반복해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무인도에 좌초돼 있을 때 우연히 다른 인간과 마주하게 된다면, 그가 자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일지라도 곧장 그 사람에게 친밀함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한다.

행복은 개인의 문제이며 사회 문제들과 별개로 각자가 스스로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이는 행복이 사회적인 것과 맞물려 있어 가난·불평등, 편견, 정치적 억압 같은 조건들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달라이 라마와 커틀러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을 깨고자 노력한다. 행복은 개인과 사회 양쪽 모두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글·남형도 기자

새로 나온 책

식탁 위의 한국사

주영하 지음
휴머니스트 · 2만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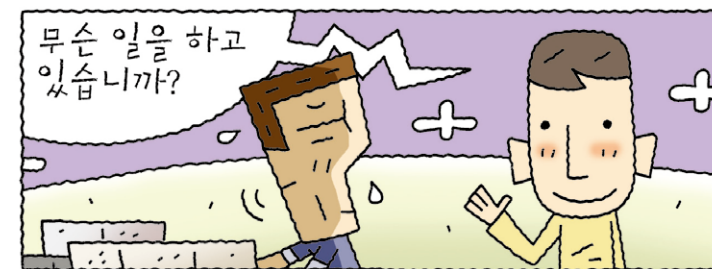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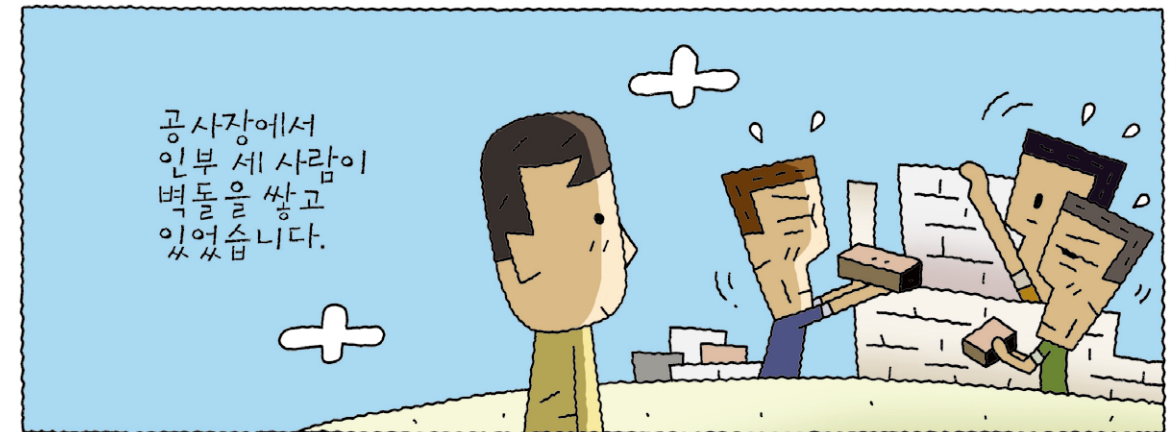
〈식탁 위의 한국사〉는 우리가 100년 동안 무엇을 먹어왔는지,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식탁 위 메뉴를 통해 20세기 한국의 음식문화사를 살펴본다. 음식인문학자인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음식을 역사로 만들고, 역사를 정답으로 여기는 풍토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똑똑한 경제학

제임스 가와트니, 리처드 스트라우프, 드와이트 리 지음
한국경제신문사 · 1만4천원

〈똑똑한 경제학〉은 복잡하게만 생각되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일상 용어로 명쾌하고 간결하게 정리한다. 개인의 재산과 국가의 부, 자본주의의 미래에 걸쳐 꼭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경제학적 쟁점들을 뽑아내 일목요연하게 풀이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글과 그림 · 최영순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번째 선물은 없다.
– 로빈 샤르마(미국의 정신훈련 전문가)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유키 구라모토가 내한공연을 펼친다.

가을이라 더 애잔한 피아노 선율

〈2013 유키 구라모토 가을콘서트〉

서정적인 분위기의 연주를 통해 대표적인 '힐링 뮤지션'으로 알려져 있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한국을 찾는다. 9월 2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13 유키 구라모토 가을콘서트'가 열린다. 유키 구라모토는 음반 〈Reminiscence〉, 〈Romance〉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의 대표적 히트곡인 'Romance' 'Meditation'과 새 앨범 〈Piano Consolation〉에 수록된 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일본 뉴에이지의 거장인 유키 구라모토는 서정적인 곡조와 감각적인 연주로 두터운 한국팬을 확보하고 있다. 위안과 안타까움, 사랑스러움, 희망 등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한다는 유키 구라모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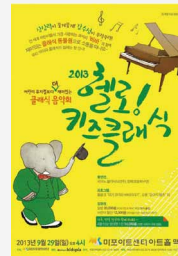
구라모토는 1995년 한국 데뷔 공연을 가진 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피아노 솔로 콘서트를 내걸었다. 그는 이번 솔로 공연을 위해 특히 편곡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연 관계자는 "관객들은 피아노와 마주한 '심금을 울리는 순간'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연주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유키 구라모토의 해설이 곁들여진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구라모토는 비록 서툰 한국어이지만 관객들에게 최선을 다해 모든 음악을 직접 소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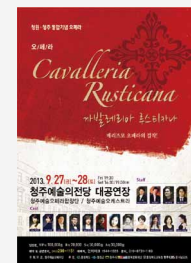
자신이 직접 작곡, 편곡, 연주까지 하는 드문 뮤지션인 구라모토의 음악은 아름답고 평온하다는 호평을 듣는다. 서정적인 연주와 음색은 특히 가을과 잘 어울린다. 애잔한 선율과 절제된 분위기가 듣는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G

글·김혜민 기자

일시 9월 21일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 1577-5266

공연

〈2013 헬로! 키즈 클래식〉

가을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 공연이 마련됐다. '2013 헬로! 키즈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2011년 처음 무대에 오른 이 공연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 관계자는 "태어나서 5세까지 귀가 열리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아이들의 평생을 풍요롭게 해줄 감성을 선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시 9월 29일
장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문의 ☎ 02-3274-8600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9월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청주 예술의전당에서는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공연된다.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이탈리아어로 '시골의 기사도'라는 의미로 19세기 이탈리아 지중해에 있는 시칠리아 섬을 배경으로 한다. 시골 젊은이들이 결투를 해 슬픈 결말을 맞이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사실주의 오페라(베리스모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지만 국내에서는 드물게 공연된다.

기간 9월 27~28일
장소 청주 예술의전당
문의 ☎ 043-298-1151

최고의 효도 선물

한가위 최고의 효도는 안전운전입니다.

'어둠의 벽' 앞 고통이 창의성 낳는다

마네의 1863년 작 〈풀밭 위의 점심식사〉(위)와 피카소의 1961년 모작 〈풀밭 위의 점심식사〉(아래).

똑같은 씨앗에서 난 풀들이라도 그 생태 조건에 따라 달리 자란다. 나무들 역시 그렇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재료로 요리를 하더라도 그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의 음식이 된다. 가령 두부를 가지고 1년 365일 다른 요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어떤 중국 음식점 주방장의 장담을 들은 적이 있다. 하나에서 비롯된 많은 결과물(many in one)의 사례는 얼마든지 많을 것이다.

창작자 역시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험 세계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 세계를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곧 작가다.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는 우선 상상의 눈이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그리스 작가 카잔차키스의 이야기에서 그 상상의 눈은 이렇게 작동된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새들, 물과 돌'을 보던 눈이 '생각과 꿈, 환상과 번쩍거리는 섬광'을 보고, 또 '죽음처럼 무서운 침묵의 밤'을 응시한다. 그러다가 더 이상 '어둠의 벽'을 뚫을 수 없다고 절망하기도 한다. 그 절망과 응시의 반복으로 상상의 눈은 더욱 빛나고 깊어진다. 작가만 그런 게 아니다. 많은 이들이 카잔차키스처럼 '어둠의 벽' 앞에서 무척 고민하고 곤혹스러워한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경험은 확실히 20세기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다. 새로운 가능 세계의 스펙트럼은 더욱 확장되고 또 복잡하다.

여러 이유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골몰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가이든, 학자이든, 기업가이든,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농어민이든 할 것 없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삶을 열어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창의적으로 일을 하라는 주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개의 경우 보통 사람들은 '나는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한다. 창의성은 소수의 천재들의 영역이라고 치부하곤 한다. 과연 그럴까?

모차르트, 뉴턴, 괴테, 다윈, 피카소……. 이렇게 나열하면 누구라도 창의적인 천재들의 목록이라고 짐작한다. 그들은 어떻게 창의성을 획득하고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하늘에서 벼락처럼 축복의 창의성이 떨어졌을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갑자기 천재가 되어 있었을까? 물론 타고난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타고난 것보다는 자라면서 남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려 애쓰고 노력한 흔적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또 누구보다도 오래 '어둠의 벽' 앞에서 그것을 응시하고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가령 파블로 피카소(1881~1973)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열네 살 때 그린 〈맨발의 소녀〉로 조숙한 재능을 인정받은 피카소였지만, 그는 결코 만족하여 멈추거나 반복하려 하지 않았다. 그가 가장 싫어한 것은 반복하는 것이었고, 자신이 이전에 한 작업과 비슷하게 되풀이하는 것이었고, 또 사람들의 기대지평에 맞추어 그리는 것이었다.

대신 그는 늘 조금 다르게 형태와 색과 스타일을 변형시켜 미술의 지도를 바꾸기를 소망했다. 조금 다르게 그리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고투했는가는 여러 작품에서 확인된다. 그는 이전의 명작들을 투시하고 해체하면서 자기 식으로 변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예컨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자기 그림으로 변주하기 위해 58작품이나 다시 그렸고,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에 대한 변주는 140여 점에 달했다. 그때마다 피카소는 '어둠의 벽' 앞에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어둠의 벽' 앞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애쓴 결과물들은 창의성의 역사에서 길이 빛나게 되었다. Ⓖ

글 · 우찬제(문학평론가/서강대 문학부 교수)

KOREA INTERNATIONAL CIRCUIT

티켓판매처 : 옥션티켓, G마켓티켓, 공식홈페이지(www.koreangp.kr) / 구매문의 : 1588-3448, 061-288-5152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F1이 되겠습니다."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선도사업으로 F1이 시작되어, 2013년부터 해남 구성지구가 본격 개발됩니다.
  - 향후 10년간 1조 1037억 투자, 생산유발효과 10조 7,706억원, 고용 유발효과 11만여명
- F1대회는 손실을 훨씬 초과하는 직접적인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나타납니다.
  - 대회기간 중 관람객 389억 지출효과, 1,760억원 경제 파급효과, 2천여명 고용창출
- 경주장(KIC)이 지역민의 문화 ·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국내 유일 국제규모 카트 경기장, 오토캠핑장, 생활 야구장 등 운영
- F1서킷을 활용한 모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 2013 ~ 2016(4년간) 786억 투입 『차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 추진
-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되어 F1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국격 상승 등 국가발전에 기여, 국비 등 100억원 확보

티켓가격

등급	좌 석 명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전일권
R	메인그랜드스탠드	20,000	340,000	720,000	890,000
S	스탠드 A	15,000	260,000	480,000	600,000
A	스탠드 C, D	10,000	120,000	200,000	–
B	스탠드 B, E, F, G, H, I, L	5,000	80,000	120,000	–

※판매처 : 옥션티켓, G마켓티켓, F1공식홈페이지

할인 혜택
- 15세 미만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 상시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2013 FORMULA 1 KOREAN GRAND PRIX

The F1 FORMULA 1 logo, F1, FORMULA 1, 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 GRAND PRIX, KOREAN GRAND PRIX and related marks are trade marks of Formula One Licensing BV, a Formula One group company. All rights reserved.